

# 2019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 강화 워크숍 안내



- ❖ 주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 ❖ 일시 및 장소

| 권역  | 날 짜                  | 장 소           |
|-----|----------------------|---------------|
| 호남권 | 09.24(화) 09:30~17:00 | 광주광역시일곡도서관    |
| 충청권 | 10.08(화) 09:30~17:00 |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
| 경상권 | 10.29(화) 09:30~17:00 |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
| 수도권 | 11.12(화) 09:30~17:00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 |

- ❖ 일정표

| 시 간              | 세부 내용                                   | 비 고                                |
|------------------|-----------------------------------------|------------------------------------|
| 09:30~10:00(30') | 등 록                                     |                                    |
| 10:00~10:10(10') | 안내, 인사                                  |                                    |
| 10:10~11:30(80') | 강의(작은도서관 현황과 공동주택<br>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방안)    | 박민주 관장(충청)<br>정기원 이사장(호남,경상,수도권)   |
| 11:30~13:00(90') | 점심 식사                                   | 인근 식당                              |
| 13:00~13:40(40') |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비<br>확보 방안               | 유대기 이사장<br>(공생사회적협동조합)             |
| 13:40~13:50(10') | 휴 식                                     |                                    |
| 13:50~14:30(40') |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운영사례1<br>(독서프로그램 기획, 지역네트워크)  | 김경이 관장(4개 권역)                      |
| 14:30~15:10(40') |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운영사례2<br>(홍보 및 이용자 확보)       | 김은정 팀장(호남, 충청,<br>수도권) 정수미 간사(경상권) |
| 15:10~15:50(40') |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운영사례3<br>(자원봉사자 활용 및 운영비 마련) | 김미경 관장(호남, 경상,<br>수도권) 신훈정 관장(경상권) |
| 15:50~16:30(40') | 종합질의 및 응답                               | 진행 박훈 관장<br>(발표자 3명, 전문가 1)        |
| 16:30~17:00(30') | 설문지 작성, 폐회                              |                                    |

# 목 차

## 기초 강의

### ▣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 ▶ 수도권, 경상권, 수도권

정기원 /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 7

#### ▶ 충청권

박민주 / 성성작은도서관 관장 ..... 7

### ▣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비 확보방안

유대기 / 공생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27

## 우수사례 발표

### ▣ 독서프로그램 기획 및 지역네트워크

#### ▶ 호남권, 충청권, 경상권, 수도권

김경이 / 서울 푸른작은도서관 관장 ..... 39

### ▣ 홍보 및 이용자 확보

#### ▶ 호남권, 충청권, 수도권

김은정 / 서울 데시앙 책올터작은도서관 팀장 ..... 49

▶ 경상권

|                                |    |
|--------------------------------|----|
| 정수미 / 성남 백현3 꿈꾸는작은도서관 간사 ..... | 57 |
|--------------------------------|----|

▣ 자원봉사자 활용 및 운영비 마련

▶ 호남권, 충청권, 수도권

|                            |    |
|----------------------------|----|
| 김미경 / 전주 미소플작은도서관 관장 ..... | 63 |
|----------------------------|----|

▶ 경상권

|                           |    |
|---------------------------|----|
| 신훈정 / 김해 팔판작은도서관 관장 ..... | 69 |
|---------------------------|----|

질의 응답

설문 조사



## 기초 강의

### ▣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 ▶ 호남권, 경상권, 수도권

정기원 /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 ▶ 충청권

박민주 / 성성푸른작은도서관 관장

### ▣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비 확보방안

유대기 / 공생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정기원 /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sup>1)</sup>

작은도서관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으로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에 마을마다 한곳씩 개설하여 마을공동체의 생활거점으로 삼았으면 한다. 작은도서관은 태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며, 책을 읽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작은도서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sup>2)</sup>

### 1. 작은도서관의 정의

#### 1) 도서관의 정의

「도서관법」 제2조(정의)에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정기원은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책사랑작은도서관 대표. 1994.5, 전주에서 ‘행복한 작은도서관’ 시작, 1995.5.15. 전북최초로 전주시 신고필증을 받음. 1995.9. 작은도서관 전북협의회(전북 제2000-41호 비영리민간단체) 조직, 1997.11. 한국사립문고협회를 조직, 초대회장. 2008.1. 문화관광부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로 허가받아 이사, 사무총장, 상임이사를 역임. 2010년부터 5년간 익산시립마동도서관 관장을 지냄. 2012. 8. 시행된 「작은도서관진흥법」 제정에 큰 역할. 전주대 대학원 문헌정보학 석사, 1급 정사서, 2015.8. 명예철학박사를 받음. 저서는 『독서지도 길라잡이』 외 3권이 있다.

2) 2018 전주독서대전 작은도서관 포럼 책자 P.37.

## 2)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

「도서관법」 제5, 6조 설치기준(대통령령에 따른 별표)에 보면 도서관 면적이 264㎡ 이상 이어야하며, 열람석 60석 이상, 기본 장서 3,000권 이상, 연간증가도서 300권 이상, 사서 자격 소지자 3명이 있어야 공공(사립)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은 면적 33㎡이상, 열람석 6석, 장서 1,000권 이상만 갖추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설치기준은 1994년 3월 시행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기준으로 작은도서관 공간시설에 미흡하여 면적 66㎡이상, 열람석 12석, 장서 3,000권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작은도서관은 면적이 공공도서관 면적보다 넓고 자료가 많아도, 사서 3명이 근무하지 않으면 도서관 명칭을 ‘작은도서관’ 이라고 사용해야 한다.

## 3) 작은도서관의 정의

작은도서관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2009년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작은도서관을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정의를 내렸다. 정의와는 달리 “작은” 도서관이 아닌 “작은도서관”으로 생활주거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생활친화적 독서문화 사랑방, 생활 밀착형 소규모 독서문화공간인 셈이다. 작은도서관 설치 정책 개념으로 보면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곳에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써 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2018년 전국 작은도서관 6,330개소로 아래 표와 같다.

<표1> 2018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 지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총 6,330개관 |
|-------|-----|-----|-----|-----|-----|-----|-----|-----|-----------|
| 관수    | 981 | 370 | 208 | 255 | 393 | 218 | 158 | 56  |           |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1,536 | 197 | 234 | 325 | 286 | 286 | 260 | 424 | 143 |           |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이하 아파트)의 작은도서관이 전국 1,727천 개관으로 전체 작은도서관의 35.3%나 된다.

<표2>. 공,사립 설립주체 및 연도별 현황<sup>3)</sup>

| 항목       |    |              | 2016년 |       | 2017년 |       | 2018년 |       |
|----------|----|--------------|-------|-------|-------|-------|-------|-------|
|          |    |              | 관수    | %     | 관수    | %     | 관수    | %     |
| 설립<br>주체 | 공립 | 지자체 직영       | 971   | 69.2  | 977   | 69.4  | 982   | 68.5  |
|          |    | 민간위탁         | 432   | 30.8  | 430   | 30.6  | 451   | 31.5  |
|          | 사립 | 개인 및 민간단체 설립 | 1,295 | 28.7  | 1,298 | 27.9  | 1,342 | 27.4  |
|          |    | 새마을문고        | 382   | 8.5   | 368   | 7.9   | 368   | 7.5   |
|          |    | 종교시설         | 1,114 | 24.7  | 1,155 | 24.8  | 1,196 | 24.4  |
|          |    | 법인 설립        | 270   | 6.0   | 270   | 5.8   | 264   | 5.4   |
|          |    | 아파트 작은도서관    | 1,450 | 32.1  | 1,560 | 33.6  | 1,727 | 35.3  |
|          |    | 합계           | 5,914 | 100.0 | 6,058 | 100.0 | 6,330 | 100.0 |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밀집 거주생활로 독서환경조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최적지인데도, 개관을 못한 곳이 많고, 개관하였다 할지라도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침체되어 가는 도서관이 많다. 이것은 운영 능력 부족과 작은도서관 운영의 구심점 부족, 운영 활성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한다.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는 2018, 2019년 LH공사 임대주택 27개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전문가를 파견하여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확신했다. 이번 2019 워크숍은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운영되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사례를 제시 하고, 참여자들과 지속가능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토의하고자 한다.

## 2. 아파트 작은도서관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3) 2018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P.24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제26226호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본조신설 2013.6.17] [[시행일 2013.12.18.]]

### 1)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위와 같은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아파트 작은도서관 의무적인 설치로 지속적인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이법은 1994년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독서진흥을 위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와 함께 주택법 등을 통해 건설회사가 500세대 이상 건축 시에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2006년 300세대로 강화, 2013년 다시 500세대로 완화했다.

### 2) 아파트 도서관의 역사

1987. 10.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에 성산문고를 설립, 주민들의 자원봉사위주로 운영하였다. 1992.4. 강남 한신타운아파트에 한신타운문고, 1993. 11.원주시 우산동에 삼호아파트문고가 설립되었다. 당시 협의회를 출범시킨 정정식 회장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전국 방방곡곡에서 여러 아파트가 문고를 운영하였다고 한다.

### 3)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특성

아파트도서관은 의무조항에 의해 설치되는 곳으로 운영자들의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다. 개인이나 단체가 설립하는 작은도서관은 설립자의 의지에 따라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도서관은 설립자와 운영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시작부터 자발적인 의지가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특성도 다르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설립자인 건설사는 사업승인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법으로 정한 필수 시설의 하나인 작은도서관 공간을 만들었을 뿐 애초에 어떠한 가치나 신념을 가지고 설치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공간구성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전문가의 의견이

나 깊은 고민의 과정 없이 유희공간에 채워 넣기 방식의 형태라는 느낌을 쉽게 받게 된다.(중략) 아파트는 입주자에게 분양이 이루어지고 소유권이 확정되면 법에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의 하자보수 등의 보상을 제외하면 개인 전용공간의 책임은 소비자인 집주인에게, 아파트 공용공간에 대한 관리와 운영책임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와 운영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이관된다. 하지만 입주 초기 형성되는 입주자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이나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정보가 없는 실정이며, 이것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부족과 운영의지 부족으로 나타난다.<sup>4)</sup>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작은도서관은 임대권자(예, LH공사, SH공사)인 건설사에게 권한이 있어 분양아파트와는 운영주체가 다르다.

아파트도서관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성향과 의지에 따라 운영의 활성화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유일한 의결기구로 관리규약에 정한 여러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개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파트 내부의 여러 힘의 논리로 인해 조직이나 세대 간에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부족, 설치의무만 있고 운영지원에 대한 의무가 없는 법령의 미비점,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sup>5)</sup>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대한 불분명한 여러 가지 특성으로 작은도서관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스럽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게 되면 문을 닫아 방치하거나 창고로 사용하게 된다. 이것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부족과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것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작은도서관협의회 출범

1990년대 들어서면서 독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종교단체, 시민단체, 개인들이 전국에서 등장하게 되었고, 1993년 10월에 종로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전국협의회’가 구성되고, 1994년 2월 이사회 및 회장단(회장 오재경, 초대 문공부 장관)이 선임되었다. 동년 3월 14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1회 작은도서관 전국대회 및 임시총회’가 개

---

4) 박민주,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 논문, 청주대학교대학원, 2017.) 64.

5) 전게서. p.65.

최하였고, 문고관련자 약 600여명이 참석했었다. 1997,8년경을 기점으로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어린이와작은 도서관협회가 재창립 및 창립되었다.

## 5) 정부 작은도서관 정책시작

위 단체들의 작은도서관 운동과 작은도서관을 바탕으로 2004년에는 문화관광부가 정책보고서인 ‘창의한국21: 문화비전’에 ‘1만 개 작은도서관, 이웃도서관 확충운동’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은 2005년에 ‘작은도서관 진흥팀’을 신설하여 작은도서관 용어를 정부에서도 사용하기 시작했고, 작은도서관 발전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했다.<sup>6)</sup>



2009년 「도서관법」을 개정하면서 작은도서관을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정의를 내렸다.

2012년 2월에 제정된 「작은도서관 진흥법」은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가져왔다고해도 과언은 아니다.

## 3. 현 작은도서관의 정체성 및 문제점

### 1) 시설기준의 모호성과 운영 전문성 부족

작은도서관은 법적인 기준이 미약하여 누구든지 작은도서관의 기본 시설기준만 갖추면 설립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쉽게 설치할 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지원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늘어나면서 지원을 기대하면서 요즘은 작은도서관을 설립고자 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전혀 도서관에 대한 운영 지식이 없이 설치하다보니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작은도서관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6) 남영준. 작은도서관(문고포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06.

아파트도서관은 법조항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보니 의욕이나 운영지식이 없이 개설을 하는 경우도 많다.

작은도서관 설립자들의 운영 연수에 대한 강제규정도 없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 보수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한 도서관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는 2017년도 2,117개관(33.4%)정도이다.<sup>7)</sup>

2017년도 평가에서 등급별 평가를 보면 A등급 259개관(4.3%), B등급 1,206개관(19.9%), C등급 2,098개관(34.6%), D등급 1,986개관(32.8%) F등급 509개관(8.4%)로 나타났다. 6,058개관 중 D, F등급은 2,495개관(41.2%)이나 된다.

사립도서관인 경우 A등급 159개관(3.4%), B등급 865개관(18.6%), C등급 1,700개관(36.6%), D등급 1,660개관(35.7%), F등급은 267개관(5.7%)으로 나타났고, 공립작은도서관의 경우 A등급 159개관(3.4%), B등급 865개관(18.6%), C등급 398개관(28.3%), D등급 326개관(23.2%) F등급 242개관(5.7%)로 나타났다. 공사립 작은도서관 공히 D,F등급이 30,40%나 된다.<sup>8)</sup>

## 2) 운영재정의 어려움

작은도서관은 기업이나 단체, 개인 독지가들에 의해 설립되어야 운영재정에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독서운동에 의욕만 있는 단체나 개인이 설립하여 재정을 충당하지 못하여 등록만 하고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다.

2018년도 통계에는 작은도서관이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항목을 보면 예산지원이 2,846개관(45%)으로 가장 많았고, 장서지원 1,904개관(30.1%), 독서, 문화프로그램 지원은 1,731개관(27.3%), 인력지원1,012개관(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실태조사에서 작은도서관의 수입원을 조사하니 행정기관 지원이 2,003개관(33.1%), 다음은 자부담 1,934개관(31.9%), 후원금 1,861개관(30.7%), 후원회비 및 이용료가 379개관(6.3%) 순으로 파악되었다.

## 3) 실태조사 의견 제시의 활성화 방안

2018년도 운영실태 조사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공립작은도서관 381개관, 사립작은도서관 2,115개관 총 2,496 개관의 의견이

7) 문화체육관광광부. 2018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9. P.51.

8) 문화체육관광광부. 2017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8. P.57.

제시되었다.

설문 의견 제시 분석결과 직원, 순회사서, 사서, 자원봉사자, 강사(프로그램) 등 인력 지원 관련의견이 527개(21.2%)로 가장 많아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 인력 확보가 최우선으로 나타났다.

또 공립 작은도서관은 문화프로그램 및 독서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으며,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비지원, 도서지원, 프로그램지원, 인력이나 순회사서 지원 순으로 의견을 내놓았다.

공사립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 의견에는 차이가 있는데, 공립은 프로그램이나 도서지원 등의 비중이 크고, 사립작은도서관은 운영비 및 도서지원의 의견이 많았다.<sup>9)</sup>

#### 4. 활성화 방안 제시

무슨 일이든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기 마련이다. 작은도서관 운영이나 활성화도 마찬가지다. 운영주체가 전문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다.

##### 1) 연구자들의 활성화 방안

○ 최초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연구 논문을 낸 안미경<sup>10)</sup>은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8가지를 제시하였다.

- (1) 주택법을 통해 의무사항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설립유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조항이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 (2) 도서관 시설 면적 중 열람실은 99.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실을 운영해야 한다.
- (3)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정규직원으로 전문사서를 채용해야하며, 작은도서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운영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 (4)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사서가 운영중심이 되어야 한다.

9)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9. P.75.

10) 안미경,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J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대학원, 2011.). 발표자에게 자문 받았음

- (5) 운영자 및 사서의 전문교육이나 자원봉사자의 계속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사서 자원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한다.
- (6) 작은도서관과 시립도서관 나아가서 국립중앙도서관을 연계하는 온라인서비스 통합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 (7)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들의 특성이나 요구에 맞는 장서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8) 전문 인력이 정규직으로 상주하여 주 40시간 이상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

○ 박미주(2017)는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문헌분석과 면담 및 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연구를 실시, 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네트워크, 관련법령 부분으로 나눠 방안을 제안했다.

(1) 운영 측면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활동가들은 작은도서관이 아파트운영, 주민공동체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대표회의와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한다.

(2) 지역주민들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자원활동가를 확대하고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작은도서관에 전문교육을 받은 사서가 배치돼야 한다.

(3)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을 제안, 운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 관리주체의 대표인 관리소장, 도서관 자원활동가 대표, 도서관 근무자 및 사서, 이용자 대표, 홍보와 교육 전문가,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한다.

(4) 관리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장서관리를 기초로 해 영유아 및 아동, 고령 이용자를 위한 장서구성 및 독서프로그램 개발, 서가 배치 등 폭 넓은 이용자 확대를 꾀하고, 작은도서관을 작지만 쾌적한 공간으로 관리해야 하며, 자원활동가 사이에 갈등 방지를 위해 운영자가 조직운영 경험자이거나 인적자원개발 관련 교육으로 조직운영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전문가여야 한다.

(5) 교육 및 홍보 측면에서는 이용자 교육으로 인식개선 및 홍보효과, 자원활동가 정기 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하고, 대표회의 의무 교육 시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법령 및 운영 매뉴얼 숙지, 관리소장 대상 주택관리사 정기 교육 시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공유 및 업무매뉴얼 교육 등. 공동주택 관리과 및 작은도서관 중앙지원센터 담당자들에 교육자료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해야 한다.

(6)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아파트 작은도서관 간의 네트워크로 정보와 사례 공유 및 지구단위 아파트 작은도서관 연합체

계 구축해야 한다.

(7)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파견이나 업무지원 등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루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인력과 재정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미경과 박미주는 석사논문에서 아파트 작은도서관 현장의 문제들을 조사 분석하여 활성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문제가 해결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해결되지 않을 확률이 더 많다.

그렇다고 하여 이런 문제에 막혀서 아파트 도서관의 운영을 머뭇거릴 수 없기에 이런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현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워크숍의 활성화 방안

### (1) 운영인력 구성이 제일 중요

도서관에서 건물과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sup>11)</sup> 바로 작은 도서관의 운영주체인 사람(입주자대표회의, 관장, 직원, 봉사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작은도서관이 남의 일이 아닌 아파트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소장 등이 작은도서관 교육을 통해 아파트 공동체에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직원이나 자원활동가들도 도서관학을 전공한 작은도서관 전문가들에게 작은도서관에 관한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운영자나 직원이 부단히 노력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작은도서관에 희망이 있다.

운영주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면 도서관 운영예산이 풍부할지라도 도서관을 개관하는 것에만 불과하므로,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배우고 연구하며 운영해 나가야 한다. 활동가들은 작은도서관에서 봉사나 근무를 자기성장의 기회로 삼고, 도서관 봉사를 통하여 성장해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면 성취감으로 더욱더 힘써 일할 수 있을 것이다.

### (2) 커뮤니티 공간으로 입주민의 심적 욕구 충족과 민원해결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사람들의 욕구나 관심사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 아파트도서관 운영자들은 입주민의 욕구, 연령, 관심 등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재빠르게 파악하여 욕구를 충족하도록 노력하여 입주민들의 구미를 당기는 곳이 되어

---

11) 정기원, ‘작은도서관 현 단계와 개선방안 연구,’ 계간디지털도서관제65호, 2012.p.33.36.

야 한다. 도서관에 즐길거리가 있으면 자주 이용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의 공동주택 현안 토론장으로서 과제들을 연구하여 발표하고, 의견을 모아 실행하는 현장이 되게 해야 한다. 개개인의 고단한 삶의 휴식처, 고통 받는 마음을 독서로 치유 받는 힐링의 장소가 되게 해야 한다.

입주민회의, 동아리모임, 건강특강, 교육특강 등 공동체의 작은 학교가 되어 문화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 (3) 홍보와 평생교육(독서문화 프로그램)

도서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도서관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루 이용자 30명이라고 가정할 때, 5일 동안 중복되지 않은 이용자하는 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고민해보면 좋겠다.

발표자는 5년 동안 시립도서관장을 지내며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부단히 연구하고 적용하여 보았는데 기대이상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도서관에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모두의 홍보 부족에 있다.

공공도서관의 홍보는 도서관 홈페이지, 관내 게시판 부착, 시 홍보지 알림란이 거의 전부다. 전단 홍보물을 제작한다면 몇 장정도 일까? 아직도 우리 시대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도서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자들이 2/3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도서관 홍보는 도서관을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어, 도서관이 이용자가 늘지 않고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마동도서관에서 시험결과, 위탁시보다 2,3배가 넘는 이용자가 찾아오게 되었고 독서운동을 통해 도서대출 이용자를 대폭 늘릴 수 있었던 것은 홍보의 효과였다. 그 방법들에 있어 전단을 만들어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아파트나 마트 등에 붙이고, SNS, 밴드를 통해 알리고, 홍보전단을 수강생들에게 10장씩 주어 아파트에 배포하게 하고, 언론을 최대한 이용하고 구전으로 홍보하였다. 그중에 최고의 효과는 구전홍보였다. 또한 도서관에서 직접 강의하며 도서관의 필요성,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 지인들에게 전하게 하였다.

아파트는 거주지가 밀집되어 있어 홍보하기 매우 좋은 곳이다.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 안에 일주일에 한 장 정도 다른 모습의 홍보지를 예쁘게 만들어 붙인다.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좋은 거리를 만들어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한다면 이용자 불러들이는 것은 아주 쉽다. 도서관이 활성화되면 홍보할 필요가 없다.

홍보를 위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나 이야기 꺼리다. 마동도서관은 주변에서 이용자들이 찾아오기 힘든 곳에 위치했었다. 주변에 공장단지와 종중산이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고, 버스도 한 노선만이 통과하며, 100m주변에 5층짜리 아파트만 있다. 마동도서관은 주변이 위험하고 거리가 멀어 아이들이 혼자 올 수 없어 부모가 데리고 와야만 하는 곳이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30분, 1시간씩 버스를 타고 오는 이유, 강좌 모집이 빨리 마감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꺼리가 있는 도서관, 사람들에게 감칠 맛나게 하는 도서관, 도서관에 오면 무엇인가 얻어가는 도서관, 친절한 도서관으로 프로그램이 월등했기 때문이다. 건물은 20년이 되어 노후 되고 운영에 침체가 된 도서관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곳에 생각이 되어 있는 사서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서관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잘된다는 소문이 나면 더 모이게 된다. 도서관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여 잘 운영된다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작은도서관을 문을 닫자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젊은 엄마들 몇이서만 모이는 장소, 아이들만 왔다갔다하는 곳처럼 보이면 예산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말이 많을 것이다.

지난 LH공사 시범사업에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예로 경로당에서는 9988독서,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자녀독서지도법, 어린이집 책읽어주기, 견학,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봉사시간 인정, 독서지도사 과정, 자기비전에 대한 동기부여로 힘을 북돋아 주어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 (4) 주민 예술 아마추어들의 전시장으로

지역주민에게 또 하나의 거실, 혹은 의지가 되는 서재와 같은 분위기,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가정과 같은 편안한 도서관<sup>12)</sup>을 운영해야한다. 예술가가 많이 사는 아파트는 갤러리, 아마추어 작가들의 전시회나 발표장소로 단지 내 주민들의 자기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장소로 변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티타임 장소로도 좋다.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주민들이 도서관과 친해져 애착을 가지고 자주 이용하도록 하여 공동체의 생활거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 (5) 이용자 구성에 대한 폭을 넓혀라

도서관은 다양한 이용자가 필요한 곳이다.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용자를 구분한다면 어린이, 주부, 노년세대이다.

---

12) 스가야 아키코(2004), 이진영, 이기숙 역.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 지식여행. P.109.

### ①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도서관에서 육성

미래사회를 짊어질 아이들의 인성, 사고력, 창의력을 키우는데 도서관 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드물다. 요즘 작은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도서관 마을학교’, ‘돌봄 교실’ 등은 다른 기관과 다르게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학습지나 학원에서의 진도 나가는 독서지도가 아니라 도서관만의 ‘특별한 독서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의 인물들은 어린 시절 마을도서관에서 도움을 받은 경우가 많다. 취학 전 아이들에게는 책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취학 아동에게는 독서의 흥미를 갖게 하여 책이나 자료 사용과 자기주도적 학습법을 습득하도록 하게 해주어야 한다. 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끼리들을 발굴하여 지역의 아이들에게 유익을 줘야 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잇감도 있고, 뒹굴며 누운 채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여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에게 친숙한 공간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룹 학습의 장소, 숙제클럽 등 학교 교육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10대 강사 활용, 즉 10대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후배들을 가르치고 연령을 초월하여 친구를 만들게 하는 시도<sup>13)</sup>를 미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쉼터 역할, 영화상영도 필요하다.

### ②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의 발판으로

대부분 전업주부들은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을 하게 된다.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사회에 진출하려면 약 10년 이상의 공백 기가 있어, 자신감도 부족하고 취직할 만한 곳도 없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이나 모임을 통해 자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③ 노인층에 관심을 갖는 도서관이 되어야

한국은 현재 노년층이 25%를 육박하고 있다. 20여 년 전과 달리 거의 학력이 높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자들이다. 따라서 지역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9988독서법<sup>14)</sup>을 사용, 노인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발표 활동을 하게 한다. 이는 노인들의 치매 예방과 정서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도서를 대여하고 다시 작은도서관으로 초청하여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나 손자 손녀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좋겠다.<sup>15)</sup>

---

13) 전계서. P.134, 135.,138

14) 정기원(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창안

15) 정기원 ‘마을공동체 생활거점의로서 비전제시’ 『2018 전주독서대전 작은도서관 포럼』 p.42.

#### (6) 기부자 육성으로 자립목표를 세워야

미국의 도서관은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에 의해 발전했다. 카네기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민자로 가난한 시대에 도서관을 통해 꿈을 키워 훗날 철강왕으로 대성공을 거둔 부호이다. 그는 65세에 은퇴하면서 그때까지 쌓아 올린 거액의 부를 사회공헌을 위해 사용하는데 여생을 바쳤다. 그는 자산의 9할인 3억 5천만 달러를 제공하여 세계적인 음악홀인 카네기홀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등 12개의 단체를 설립했다.

자조(自助)노력을 중시하는 그는 누구나 차별 없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에서 큰 가치를 발견했다. 그 결과 5,6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917년까지 미국과 영국에 2,509개의 도서관을 건설한다. 카네기는 절대로 전체를 후원하지 않았으며,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자선행위와 같은 구체는 본인의 노력으로 추구하지 않고, 타성을 조장한다고 생각하여 근면한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어 내는 것에 있어서 는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sup>16)</sup>

미국의 공공도서관들은 절반 정도가 기업이나 민간에 의한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도서관에 자금조달 전담부서를 두어 운영하는 비즈니스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직원들은 매일 자금조달을 위해 지혜를 짜낸다. 미국의 경우 기부액에 따라 도서관 이용의 단계적인 특권이 주어진다. 회원이라는 특권이 도서관에 대한 귀속의식을 높이고, 고액의 기부가 많아졌다. 도서관은 자금 모집 이벤트도 기획하고 도서관 기부강의도 진행한다.<sup>17)</sup> 자조적인 노력은 기존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대담한 발상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기획을 만들어 낸다.

일본의 문고 운영의 경우에도 관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운영자나 이용자들이 후원금을 마련하여 운영해 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족하며 큰 욕심 없이 지역에 역량 것 봉사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그들은 관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기들 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단지 내의 도서관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사고의식이 후원금을 기부하게 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변화할 수 있고, 우리가 노력하면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사고로 전환하여 기부문화(재능, 시간, 금품)를 확산해나가야 한다.

#### (7) 이웃도서관과 네트워크로 운영정보 소통

도서관 운영이 나 혼자서 힘들지만 여럿이 함께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주변의 아

16) 스가야 아키코(2004), 이진영, 이기숙 역.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 지식여행.P.172,173.

17) 전게서.P.176~186.

파트도서관 관계자들과 가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운영의 경험을 나눈다면 훨씬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다. 지칠 때 힘이 되기도 하고, 성취할 때 기쁨이 된다.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운영의 실패를 맛 볼 수 있지만 성공도 할 수 있다.

## 나가는 말

우리는 이번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 강의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살펴보았다. 날마다 힘든 여건에 대한 불만보다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한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운영 할 것인가를 살펴 보았다.

법적 근거로 시작한 작은도서관(문고)의 역사는 이제 25년을 마무리해 가고 있다. 사람도 20세이면 성인으로 스스로의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25세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법타령, 예산타령, 운영주체에 대한 힘의 논리 등에 묶여 시간낭비의 토의에만 그치고 있다. 이제는 안 된다는 사고보다는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

결론으로 운영주체의 도서관에 대한 바른 이해 교육, 공동체의 도서관의 필요성 인식, 도서관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의 전문지식과 열정이 중요하다. 또한 주민들에게 유익거리가 있는 도서관의 운영과 알리는 홍보, 독서하는 어린이 육성, 경력단절여성에게 자신감 부여로 사회진출 발판마련, 노년들의 건강을 위한 독서 장려, 입주민들의 재능, 물질 기부와 환경조성 및 확산, 이웃 도서관과 네트워크 협력 등으로 주민들이 도서관에서 좋은 정보를 얻어 아파트도서관이 주민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생활거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국가는 애매모호한 설립기준과 의무조항을 방치하지 말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자발적인 주민들의 도서관 운동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관은 국민들이 삶의 질을 살찌우게 하도록 작은도서관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도로는 불편해도 다닐 수 있지만 마음이 불편하면 삶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다.

정부에서 하는 생활SOC 조성사업의 취지를 깨달아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에 투자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되어야 한다. 주민들은 협력하여 작은도서관을 사람중심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마을공동체의 거점 역할과 아파트단지 발전의 미래를 그려 나갔으면 한다.

늘 예산 지원이 없으며, 부족하다고 멈칫거리기만 한다면, 작은도서관은 더 황폐해져 갈 수 밖에 없다. 칙흑같이 어두운 밤 달이 어둠을 밝히듯, 없는 가운데서 열심히 운영 해 나간다면 어떤 방법으로는 운영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일본의 가정문고들처럼 자비와 후원금으로 수 십 년 간 이끌어오는 장인정신, 자립 정신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장인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도서관 운영을 하여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정기원(2012), “작은도서관 현 단계와 개선방안 연구”, 계간디지털도서관, 2012년 봄호(통권 제65호),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 정기원(2007), ‘전라북도 사립문고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재철(2013), “마을공동체 구심체로서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광주발전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도 작은도서관 운영실 조사 및 운영평가결과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결과보고서”
- 이용남(2016), “작은도서관 전개 과정과 의미 그리고 방향성”, 2016 전국작은도서관 대회, 한국작은도서관협회.
- 새마을문고 중앙회(2000), 『새마을문고운동 40년사』.동양문화인쇄.
- 스가야 아키고(2004), 이진영, 이기숙 역.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 지식여행.

# 도서관 관리를 위한 기초 실무들

## 1. 한국십진분류법(K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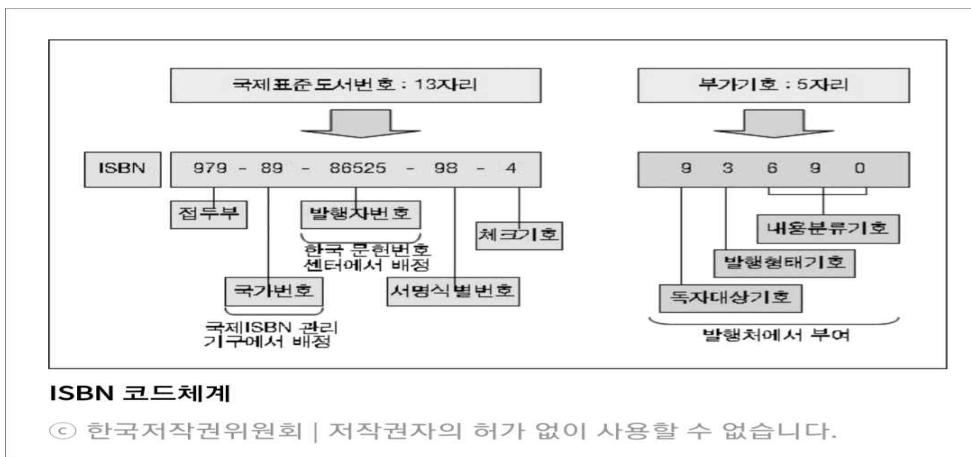
도서관 자료를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를 10가지 큰 주제로 나눈 표준화된 자료분류법을 말한다.

모든 도서를 주제에 따라 총류 · 철학 · 종교 · 사회과학 · 순수과학 · 응용과학 · 예능 · 어학 · 문학 · 역사를 10(류)가지로 나누기에 십진분류법이라 하고 이어 류에서 10가지로 나눈 것은 강, 또 10가지로 목으로 세분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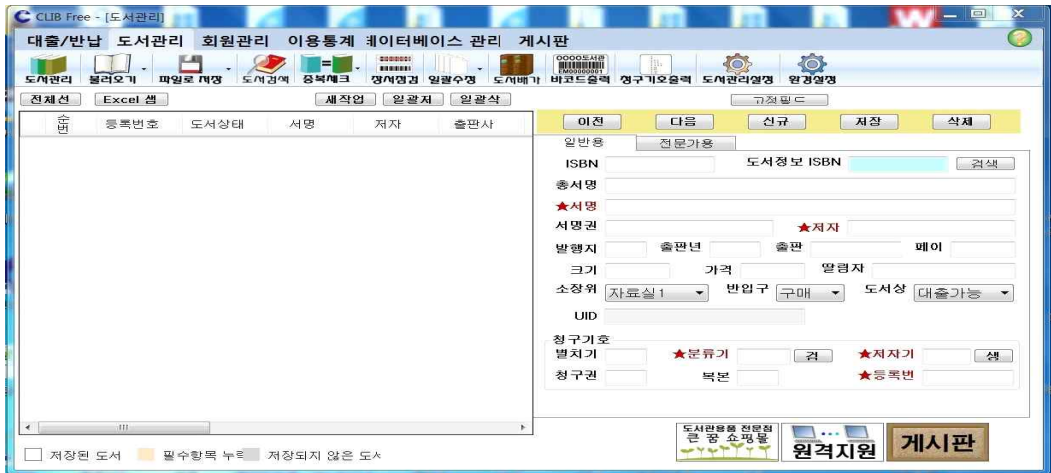
## 2. ISBN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각종 도서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기호로 국명, 출판사, 도서코드 등이 13개의 숫자로 표시된다.



### 3. 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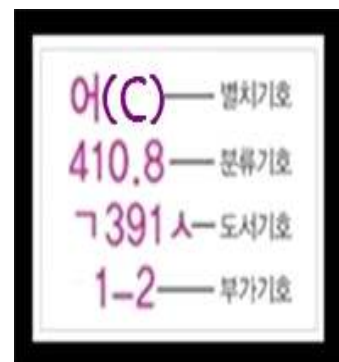
- 1) KOLASYS-NET v3.0 : 국립중앙도서관 무료배포, 작은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 이용안내 - 공공도서관기술정보센터 [kolas.nl.go.kr](http://kolas.nl.go.kr)
- 2) CLIB : 민간업체 무료배포, 책둥이 막둥이 통합형  
이용안내 - (주)에스지코리아 <http://www.smalllibrary.co.kr/>



### 4. 청구기호

도서의 내용과 도서의 서지적 특성을 가장 단순하고 간편하게 표현한 것으로 책둥아래 부분에 라벨로 부착한다. 라벨마다 색이 다른, 색띠라벨을 부착하여 십진분류를 표시한다. 회사마다 색깔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색이 다를 수 있으나 000~900까지의 숫자기호는 똑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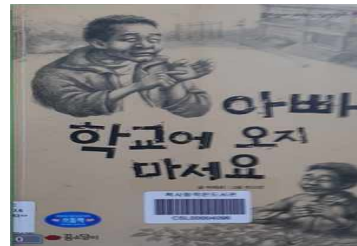
- 1) 별치기호 : 위치를 표시하는 기호로 ‘어(C)’ 어린이 도서를 지칭한다.
- 2) 분류기호 : 도서주제를 숫자로 표시
- 3) 도서기호 : 동일한 분류기호를 가진 도서를 개별화하기 위해 부여한 기호로, 저자, 도서명, 권호, 복본 기호 등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7391s’ 은 ‘7’ 은 저자명 첫 자, ‘391’ 은 저자명, 두 번째 단어 ‘s’ 은 도서명 첫 자임.



- 5) 권호 및 복본기호 : 여러 권에서 분책의 권수를 표시한 것으로 ‘1’ 은 1권을,  
 ‘2’ 는 두 번째로 수집된 복본을 표시. ‘V’ 는 총서를 말한다.
- 4) 저자기호 : 동일저자의 저작을 한 곳에

## 5. 입력 작업 및 장비작업

- 1) 입력 작업: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도서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바코드 리더기로 ISBN을 스캔하면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입력된다.



### 2) 장비작업

바코드 라벨-키퍼 작업-프로그램에 입력 작업-청구  
 기호라벨 프린트- 색띠라 벨과 청구기호 라벨 책등  
 에 동시 작업-도서관 측인 작업-분류 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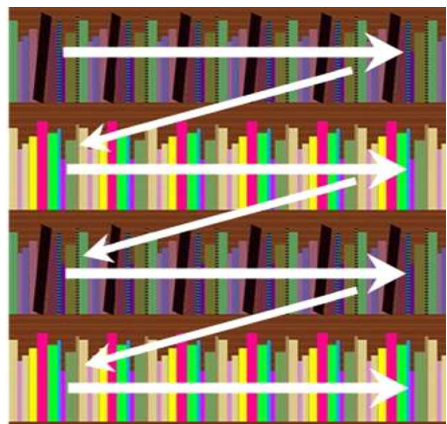


### 3) 배가

입력 작업과 장비작업을 마친 도서는 서가에  
 배가한다.

도서를 어느 서가에 배가해야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십진분류와 청구기호에  
 따라 배가.

- \*북 큐레이션: 공간 활용
- \*만드시 아동용과 성인용은 별치 배가.
- \*그림책도 서가를 따로 구분 장려



## 6. 고유 번호 발급

지역 세무서 방문 / 비영리단체(법인) 담당자

갖추어야 할 서류 1) 도서관 등록증 2) 도서관 운영규정 3) 회의록(대표인정)

4) 임대계약서 5) 직인

고유번호는 반드시 가운데다 82 (000-82-00000 )

## 7. 작은도서관 통장발급

은행 방문

1) 고유번호증 2) 대표자 신분증 3) 직인 지참 4) 카드 신청(결재만 가능)

5) 인터넷뱅킹 신청

## 8. 자원봉사자 관리

1) 문화품앗이 / 사이트 <https://csv.culture.go.kr/> 문화체육관광부

2) 1365 / 행정자치부

## 9. 회원관리

1) 도서관 회원으로 도서관리 프로그램 가입하면 관리가능

2) 문자나 밴드, 카페활성화, 회지제작 배포 등

## 10. 사업공모

1) 지방자치단체 응모는 담당부서에서 공문발송

2) 다른 사업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야

3) 협회에서 정보관리

“감사합니다”

##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비 확보방안

유대기/ 공생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나와 당신이 함께 만드는 우리마을

# MEYOU TOWN

아파트단지 중심의  
“마을기반 공동경제” 플랫폼 서비스



(주)파슬넷

### 1. MeyouTown 콘셉트

파슬넷의 MeyouTown은 모바일 시대의 최대 난제이자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Delivery의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어 아파트와 같은 밀집 주거공간의 많은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최종배송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Last Mile Delivery Aggregator!**



❖ 파슬넷의 사업정의 : 밀집주거공간에 모여있는 많은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최종배송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Last Mile Delivery Aggregator

• 통합구매, 제공하면 효율적인 상품, 서비스

- 택배, 배달 등 배송 서비스
- 유통 (일상생활용품)
- 인테리어 (태양광, 창호 등)
- 공유 서비스 (공유주방, 공유차량)
- 금융과 통신

## 2. MeyouTown 플랫폼 서비스 프레임

- 3 -

### 공동배송 서비스의 진화, “마을기반 공동경제 플랫폼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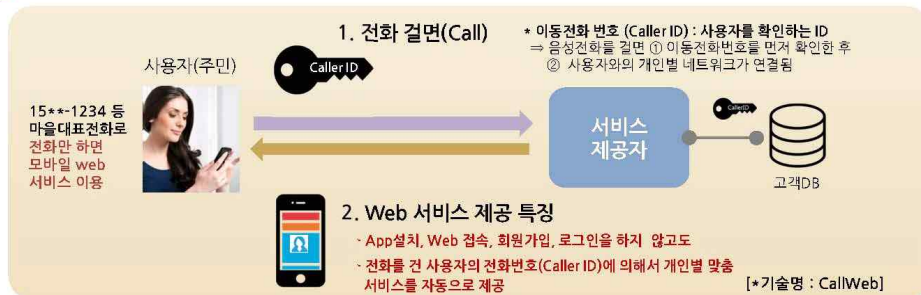
마을기반 공동경제 플랫폼은 유통 및 물류비용 절감과 서비스 효율을 높이고 마을 일자리도 창출하는 마을 공동경제 활성화 플랫폼 서비스



## 1. MeyouTown 플랫폼 시스템 차별화 / 경쟁력

- 4 -

### 1 Callweb 기반의 마을전화 Web



- 5 -

고객은 마을전화로 서비스 신청

서비스 요청

마을일꾼들이 사용하는 표준 App "Town Worker"

- ①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표준 일자리를 플랫폼으로 선정 →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개발 진행 중. 1차 개발완료(2018년 12월)
- ② 보건복지부 및 실버종합물류가 운영하는 통합배송 서비스 마을 168개 단지로 2019년 1월부터 설치 → 사용자수 1800명 (마을택배 인력)
  - \* 한우 종고서적 수거, 유아돌봄, 차량정비, 탁송 서비스 등 모든 아파트단지 마을일꾼으로 확대 진행 (보건복지부 추산 5만 명의 사용자)
- ③ 서울시 사회적경제 아파트 "같이 살림 프로젝트"를 위한 표준 플랫폼으로 선정

• Town Worker에 들어온 업무지시에 의해서 업무수행

• 업무수행 결과의 입력 -> 전체 업무량에 의한 인건비 계산

**# 시스템 화면 (일부)**

서비스 신청

5MIN RESULTS

5분 내에 완료되는 빠르고 쉬운 우리마을 서비스

1 우리마을대표전화로 전화

서비스 제공

마을주민

Town Worker App

2

3 Town Worker (택배용)

택배사 선택

- CJ대한통운
- 우체국택배
- 한진택배
- 롯데택배

신청자 정보

신청정보 전송

수령자 확인

택배등록

택배취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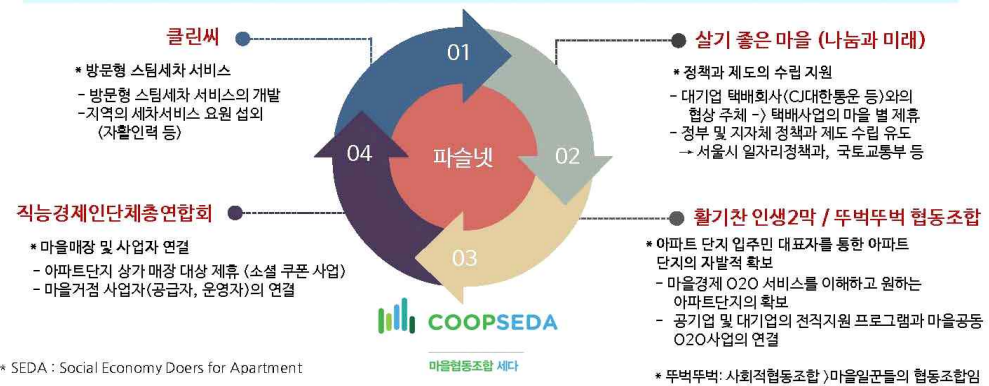
택배완료 확인

## 1. MeyouTown 플랫폼 시스템 차별화 / 경쟁력

- 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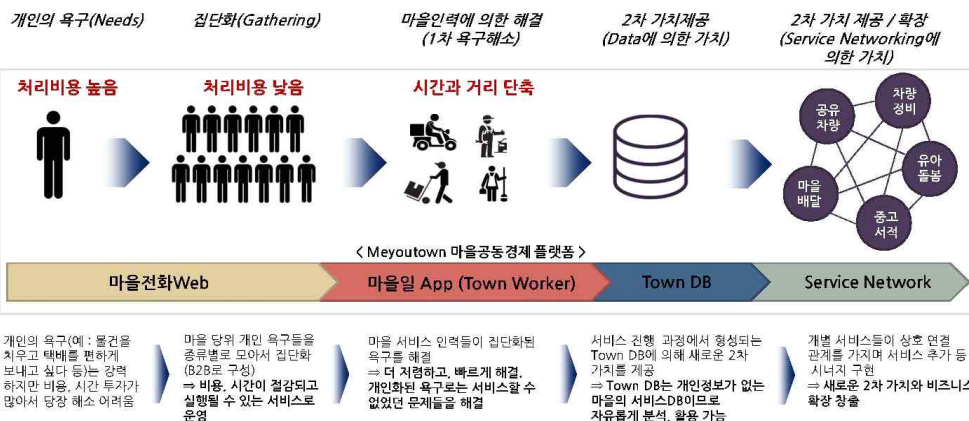
### 3 아파트 단지 공동경제를 위한 협동조합 "세다(SEDA)"

‘세다’는 아파트단지 공동경제 서비스를 추진하는 주요 사업자들에 의한 사업자 협동조합으로 마을거점과 마을일꾼을 실제 관리 운영하는 마을거점사업의 주체 -> 정부, 지자체, 아파트입주민 회의도 협동조합 서비스 형태를 선호하고 신뢰



## 3. MeyouTown 플랫폼 확장성 및 특장점\_ 작동 원리

-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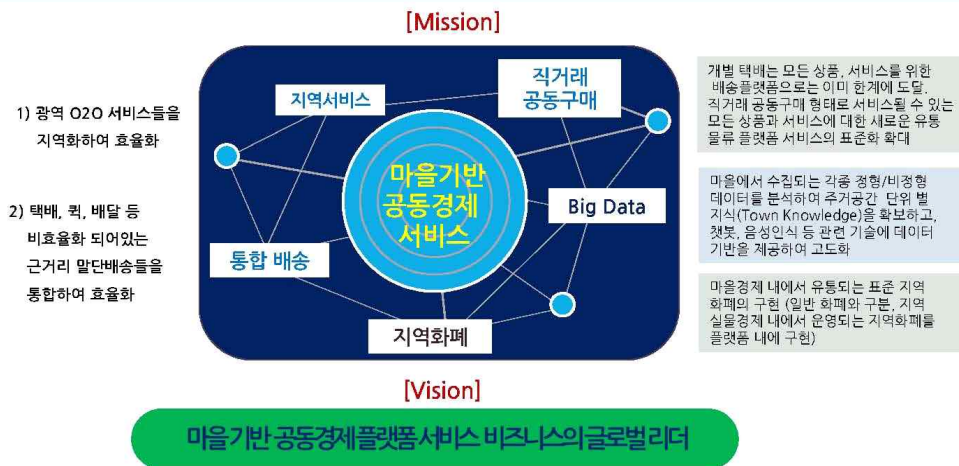
#### 4. 연관 기업 입점 제휴 전략

- 9 -



#### 5. 파슬넷 기업 Mission & Vision

-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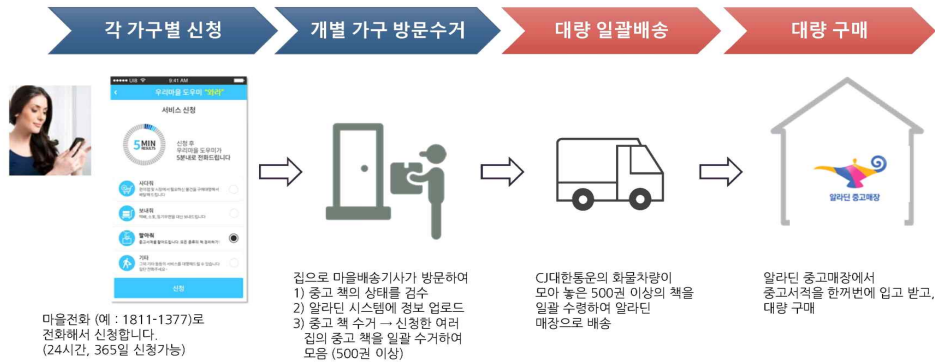
마을공동경제 홍보 팸플릿 (사전 홍보용)

마을전화 오픈 안내 전단지 (오픈이벤트용)

1. 아파트 단지 적용 사례
2. 직거래 공동구매
3. 아파트 단지 마케팅 모델
4. 투자포인트 요약

## [사례 1] 마을 O2O 서비스 \_ ‘알라딘’ 중고서적 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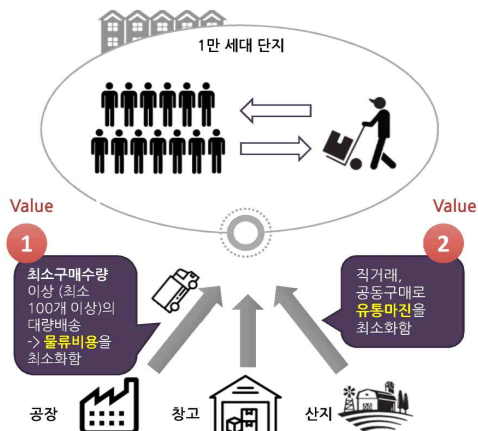
- 13 -



각 가구에 방문하여 검수, 수거하는 최종 고객접점 업무는 마을 일꾼들이 실행  
→ 마을의 개별 물량을 통합, 대량으로 일괄 배송 및 구매하여 전체 비용을 50% 이상 절감 / 고객은 “치우고 싶은 욕구”를 쉽게 실현

## [사례 2] 마을 단위 “직거래 공동 구매”\_개요

- 14 -



### < 마을단위 직거래 공동구매 상품의 특징 >

1:1 개별배송 (택배)으로는 비효율적인 모든 상품이 마을 직거래 공동구매의 대상 품목

1. 주기교체형 공산품 : 후라이팬, 칼, 도마, 식기 등 주방용품 및 면도기 등
2. 주기 구매형 상품 : 세제, 비누 등 욕실용품 / 라면, 커피 등 일상먹거리(공산품) / 쌀, 곡식 등 일상 식자재
3. 서비스 결합상품 : 위생 및 방역서비스 / LED 공동구매 및 교체 서비스

## [사례 2] 직거래 공동구매 진행중 \_ 후라이팬 보상 판매

- 15 -

### 1. 유통마진의 최소화



- 공동구매 방식 : 독일 보그트社の 한국 공장과 직거래

보그트 후라이팬의 인터넷 최저가 = 27,800원

- ① 100개 이상의 공동구매 조건 50% 할인 -> 13,900원
- ② 현 후라이팬과 1:1 보상판매 하면 -> - 4,500원

공동구매 최종가격  
= 9,500 원

### 2. 물류비용의 최소화

- 기존 방식 : 포장비용(2,000원) + 포장인건비(500원) + 택배비 (2,500원) = 5,000원
- 직거래 공동구매 방식 = 1,000원 (유통마진에서 할인해주는 만큼 물류비용에서 4,000원 수익 창출)

1. 마을전화Web으로 대량신청



2. 보그트코리아 공장에서 대량생산 후 마을에 전체 물량 대량배송



3. 마을일꾼이 개별배송 및 현 후라이팬 수거



4. 수거된 현 후라이팬을 공장으로 배송 후 재활용



## 모집 공고

“독서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1. 하시는 일

- 1) 정기적인 독서 모임 개최
- 2) 독서 행사(저자 초청 강연과 사인회, 도서바자회) 개최
- 3) 중고도서와 중고 휴대폰 수거 판매 대행

### 2. 활동 참가자: 만 40 ~ 69세, 스마트폰을 쓸 줄 아는 주민

- 서울시민: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직장이 서울시에 있는 분.

### 3. 근무 시간: 주 3~5일, 하루 4 ~ 8시간으로 유연 근무.

### 4. 근무 장소: 아파트 단지 내부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인근 지역.

### 5. 모집인원: 0명.

### 6. 보수: (1) 기본급 + (2) 수당 + (3) 수당. 시간당 최저임금 보장.

(1) 만 40세 ~ 49세: (알라딘 중고서적 판매 수수료) + (중고 핸드폰 판매 수수료)

(2) 만 50세 ~ 69세: (월 40만원: 기본 근무시간 이수자) + (알라딘 중고서적 판매 수수료) + (중고 핸드폰 판매 수수료)

### 7. 모집과 심사

(1) 모집기간: 2019년 8월 9일 ~ 18일(열흘 간).

(2) 제출서류: 이력서(사진 부착, 자유 양식)

(3) 접수방법

- 우편: (03628)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서대문50플러스센터 내 작은코끼리작업실2 공생사회적협동조합

- 전자우편: [lovegenerator1@gmail.com](mailto:lovegenerator1@gmail.com)로 이메일 전송.

### 8. 채용담당자: 유대기(공생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전화: 010-3996-0650.

### 9. 합격자 교육과 근무: 직무교육 16시간 이수, 9월 1일부터 근무 시작.



## 우수사례 발표

### ▣ 독서프로그램 기획 및 지역네트워크

- ▶ 호남권, 충청권, 경상권, 수도권  
김경이 / 서울 푸른작은도서관 관장

### ▣ 홍보 및 이용자 확보

- ▶ 호남권, 충청권, 수도권  
김은정 / 서울 데시앙 책울터작은도서관 팀장
- ▶ 경상권  
정수미 / 성남 백현3 꿈꾸는작은도서관 간사

### ▣ 자원봉사자 활용 및 운영비 마련

- ▶ 호남권, 충청권, 수도권  
김미경 / 전주 미소뜰작은도서관 관장
- ▶ 경상권  
신훈정 / 김해 팔판작은도서관 관장



## 공동주택 독서프로그램 및 지역네트워크

김경이/ 서울 푸른작은도서관 관장

### 1. 설립동기

지금 대한민국은 가히 아파트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희 푸른작은도서관도 아파트 공동체 거점공간으로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며 자립코자 고민하고 노력한 바, 3년여 지난 지금은 지역 내에서도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무한 성장 가능성과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2019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작은도서관 관계자 및 운영자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지역 내 건강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공동체로서 작은도서관이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 [연혁]

- 2019년 4월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3년 연속 A등급
- 2018년 12월 송파구 작은도서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진행 통과
- 2018년 4월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2년 연속 A등급
- 2017년 4월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A등급
- 2016년 8월1일 도서관 등록
- 2016년 7월27일 재개관
- 2015년 10월23일 푸른도서관 Uz센터 오픈식 & 푸른도서관 현판식

### 2. 작은도서관 현황

- 개관일 : 2015년 10월 23일 ·도서 : 9,300권 ·간행물 : 25종]
- 규모 : 지상1층 (도서관 면적 110㎡, 도서관 로비 125㎡ )
- 1층 : 유아실 / 어린이, 청소년, 성인도서관 / 도서관 로비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185 Uz센터 내 푸른도서관
- Tel : 02-408-9280 ·Fax : 02-409-9281
- 정기휴관일 : 일요일, 법정공휴일

### 3. 운영의 주안점

#### 1) 운영계획

##### (1) 목적

문화 인프라 제로에 가까운 신도시 입주민들과 함께 행복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계층 간 갈등해소 장으로 즐거움과 유익함을 주는 지식정보 중심 작은도서관으로 편안한 옷차림으로 아이들과 손잡고 즐겁게 책을 읽는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떠올릴 때 소중히 여겨지는 것처럼 작은도서관도 서로에게 소중하고 특별한 공간으로 지속되길 바란다.

##### (2) 추진 방법

- 이용자 위주의 전면 대출
-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 일일 확인
- 작은도서관 협회 주관 활동으로 성장 발판 구축
- 출판사 진행 다양한 작가초청 프로그램과 도서 신청
- 지역 내 재능기부 단체와 협력. 여름, 겨울 방학 프로그램 진행
- 구청과, 관내 동 추진 공모사업들 신청
- 작은도서관 연합회 지속 활동. 송파구 작은도서관 일부 개정조례안 통과에 따른 도서, 프로그램 진행

##### (3) 운영

- 영화 상영 (년 6회)
- 설명절 입주민대상 전통놀이
- 정원대보름 행사
- 책읽는 버스 행사
- 그림책 특강
- 사랑의 카네이션 만들기 행사
- 추석맞이 송편 빚기 체험
- 할로윈 파티 행사
- 빼빼로데이 /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행사
-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독서, 역사 토론 디베이트 운영
- 책 전시 및 책 나눔 행사
- 가족 책읽기 프로그램 진행
- 노인정 어르신들께 '큰 글자책' 지원 및 프로그램 진행
- 관내 작은도서관과의 순회문고 진행
- 독서 장려 이벤트 실시.(년 4회)

##### (4) 홍보

-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아파트 홈페이지와 다음카페 탑재
- 이용자 계층별 SNS 활동을 통한 아파트 주민과의 소통
- 지역 동사무소, 이웃 공공도서관에 홍보 안내문 게시
- 지역 총 연합회 네이버카페에 홍보
- 유명 맘 블로그에 도서관과 프로그램 안내 수시 게재
- 근거리 초, 중, 고 학부모회에 유익한 프로그램 지속 공지
- 송파구 자원봉사자센터(1365)와 마을 활동가들 카페에 공지
- 작은도서관 연합회에 프로그램 공유
- 지역내 서점연합회와 협업·상생 교류로 지속적인 홍보 가능
- 도서관 간 이동 강좌로 신규 도서관 & 기존도서관 교류

#### (5) 기대 효과

- 도서관 회원 확보와, 이용자층의 다양화
- 공동주택 사랑방으로서의 소통 창구
- 도서관 봉사자들의 성취감 상승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간 이해와 배려
- 연합회 활동으로 인한 생산적인 아이디어 구축
- 움직이는 도서관 강좌로 신규 도서관 & 기존도서관 폭넓은 교류
-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인한 아파트 이미지 상승
- 지역 내 다양한 단체와 점진적 폭넓은 교류 가능
- 공동주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

### 4. 자랑거리 (2018년 진행했던 독서문화 프로그램 소개)

[ 2018년 1월 ~ 3월. 독서문화 프로그램 ]

| 운영 일정                               | 프로그램 / 행사 내용                                                        |                                                                                                                                   | 준비사항                             |
|-------------------------------------|---------------------------------------------------------------------|-----------------------------------------------------------------------------------------------------------------------------------|----------------------------------|
| 2018년<br>1월8일                       | 푸른도서관 관장.<br>지역 문화 잡지<br>인터뷰                                        | 송파구 위례지역 최초 문화잡지.<br>두근두근 위례라디오. 창간호<br>인터뷰 게재. (총3페이지)                                                                           | 인터뷰자료                            |
| 3월~11월<br><u>10개월간</u><br><u>진행</u> | 출판사 3곳 후원.<br><아트프린팅<br>원화전시><br>푸른도서관 내부,<br>도서관 로비.<br>총 10개월간 전시 | 꿈꾸는 도서관, 책 씨앗 후원.<br>아트프린팅 원화전시 진행.<br>매달 1~2회 다른 원화 전시로<br>도서관 로비에서 진행. 생각하는<br>능력을 길러주는 원화전시로<br>도서관 이용자들의 호응도 높음.<br>(전 주민 이용) | 철제이젤준비<br>도서관로비<br>설치,<br>순서표확인. |



### [ 원화전시 프로그램 ]

| 운영 일정                              | 프로그램 / 행사 내용                                                  |                                                                                                                                             | 준비사항                                               |
|------------------------------------|---------------------------------------------------------------|---------------------------------------------------------------------------------------------------------------------------------------------|----------------------------------------------------|
| 4월~10월<br><u>7개월간</u><br><u>진행</u>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br><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선정.<br>매달 마지막주 작가 초청 강좌 7회 진행 | 2018년 2월 ~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작가 초청 프로그램 진행.<br>문화체육관광부 주최 /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주관 유아, 어린이, 성인 수업 등 다양한 작가들의 강좌로 진행.<br>위례동 전 주민 대상. (강좌별 20여 명씩 참여) | 홍보안내문, 현수막, 이력표, 수업책, 필기도구, 보조도우미, 강사선물, PPT 수업준비. |
| 5월24일                              |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 시, 구의원, 구청장후보 대상 진행                           | 송파구사립작은도서관 주최. 전체 작은도서관 관장들과 사서, 봉사자, 이용자들 150여명이 모여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정책 간담회 개최. 1시간여 진행. 언론매체들 기사화                                          | 정책제안서, 현수막, 홍보안내문, 참여자명부, 간식 PPT강의 준비,마이크,사회자      |
| 5월26일                              | 국민대학교 주최<br><소프트웨어에 물들다> 선정. 강연 1회 진행                         | 전국 도서관에서 5월 26일(토) 오후 2시~4시. 일시에 진행된 강좌.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재능기부팀 강연으로 진행. 위례동 주민 대상 (어린이 50여명 참여)                                            | 홍보안내문, 현수막, 이력표, 보조도우미, 간식, 강사선물, PPT강의준비          |

[ 2018년 4월 ~ 5월. 독서문화 프로그램 ]



[ 5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



[ 6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



[ 7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



[ 12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



[ 2018, 5월24일. “6.13 지방선거.  
작은도서관연합회 정책제안



[ 5월26일. “소프트웨어에 물들다.” ]

[ 2018년 6월 ~ 10월. 독서문화 프로그램 ]

| 운영 일정                        | 프로그램 / 행사 내용                                              |                                                                                                      | 준비사항                                                 |
|------------------------------|-----------------------------------------------------------|------------------------------------------------------------------------------------------------------|------------------------------------------------------|
| 6월16일                        | 송파구<br>마을공동체 주최.<br><제14회<br>단오한마당><br>참가                 | 제 14회 단오한마당. 송파구사립<br>작은도서관 연합회 단독부스참가<br>책나눔 행사, 책읽는 버스 등 10<br>가지 프로그램 진행. 최대의 단<br>오행사, (2천여명 참여) | 전 회원 참석<br>홍보문, 현수막,<br>나눔도서 500권<br>체험키트,<br>간식, 식사 |
| 9월~10월<br><u>2개월간<br/>진행</u> | 책읽는<br>사회문화재단<br>후원.<br><북스타트코리아<br>작가초청> 선정.<br>강좌 4회 진행 | 총 4회로 진행되는 성인강좌<br>프로그램. 차시별 작가초청.<br>송파구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br>회원 도서관으로 이동하며 수업.<br>(차시당 20여명 참여)            | 현수막, 이름표,<br>참여대장,<br>간식.<br>PPT수업준비                 |
| 10월6일                        | 사계절출판사후원<br><양수근작가초청><br>선정.<br>강좌 1회 진행                  | 총 1회로 진행되는 초등 고학년<br>프로그램으로, 송파구사립작은<br>도서관연합회 회원 도서관으로<br>이동 수업. (총 25명 참여)                         | 현수막,<br>이름표,명부<br>간식, 필기도구,<br>강사선물                  |
| 10월25일                       | 제55회<br>도서관대회<br>포럼 발표자로<br>참석.                           | “포럼발제 : 지속 가능한 아파트<br>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에<br>관한 주제로, <아파트<br>작은도서관 운영의 난항> 발표                            | 강원도<br>하이원<br>리조트.                                   |



[ 6월16일 “제 14회 단오한마당” ]



[ 10월21일 “송파구 북 페스티벌” ]

[ 2018년 10월 ~ 12월. 독서문화 프로그램 ]

| 운영 일정                         | 프로그램 / 행사 내용                                                      |                                                                                                                                            | 준비사항                                              |
|-------------------------------|-------------------------------------------------------------------|--------------------------------------------------------------------------------------------------------------------------------------------|---------------------------------------------------|
| 10월21일<br>~<br>10월22일         | 송파구청 주최.<br><제6회.송파구 북<br>페스티벌><br>송파구사립작은도<br>서관연합회 11개<br>부스참가) | 제 6회 송파구 북페스티벌<br>참여. 송파구사립작은도서관<br>20회원 전체가 부스 11개 에<br>나누어 참여진행. 양 2틀에<br>걸쳐 책읽기, 책나눔, 기타체험<br>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좋은<br>성과 냄.                  | 부스운영준비<br>봉사자, 현수막<br>문구용품전체<br>이름표<br>식사,간식      |
| 10월~<br>11월<br><br>2개월간<br>진행 | 송파구청 주최.<br><찾아가는<br>동지원사업> 선정.<br>어린이 / 성인.<br>작가수업 진행           | 송파구지원금 100만원.<br>총4회로 진행.<br>(차시당 20~30여명 참여)<br>*10월: 작가의 유아, 어린이<br>수업<br>*11월 : 작가의 성인수업.<br>인문고전 깊이읽기.<br>셰익스피어: 리어왕/<br>종으실 대로 작품 재조명 | 현수막<br>보조도우미<br>이름표<br>간식, 수업도서<br>PPT수업준비<br>마이크 |
| 11월13일                        | 나주시립도서관<br>도서관 강연자로<br>참석. 1회 진행                                  | 강의주제: 지속 가능한<br>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br>2시간 강연 진행.                                                                                              | 전남<br>나주시영산포로1<br>85-6.                           |
| 11월20일                        | 푸른도서관 관장.<br>지역문화잡지<br>인터뷰                                        | 송파구 위례지역 최초 문화<br>잡지. 두근두근 위례라디오.<br>인터뷰 게재. (총6페이지)                                                                                       | 인터뷰 자료준비                                          |
| 12월24일                        | 송파구<br>사립작은도서관<br>정기총회.<br>일부개정조례안<br>통과.<br>(최초 예산확보)            | 2018년5월24. 정책제안을 시<br>작으로 일궈낸 큰 성과,<br>작은도서관 기능수행을 위한<br>공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br>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br>하는 개정조례안.(안 제7조)                          | 전회원참가<br>이름표,현수막<br>참가자명부<br>간식,<br>PPT강의준비       |



[ 10월21일~22일 제6회 송파구 북페스티벌 ] [ 10월. 제55회 도서관대회 포럼발표 ]  
활성화 방안 강연 ]



[ 11월. 나주시 “사립작은도서관”

[ 12월24일 송파구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정기총회]

## 2) 프로그램 평가

### (1) 성과

- 문화가 있는 날/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작가 지원을 통한 이용자들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미지 상승효과 및 인식변화
- 매달 바뀌는 원화 전시로 가족과 함께 도서관 나들이 확대
- 도서관 연합회 활동으로 지자체 재정지원과 조례 변경확정 성과
- 설명절, 추석 전통놀이 행사로 전 연령대 주민 간 화합 증진

### (2) 아쉬운 점

- 공동주택 한계점인 외부주민 개방의 아쉬움
- 아파트 지원과 지자체 재정지원의 아쉬움
- 프로그램 봉사자들 목적별 모집의 한계점

- 공동체 활성화 단체와의 미미한 갈등
- 입주자 대표회의 조직의 변화에 따른 작은도서관 이해의 한계점
- 계층별 독서동아리 2곳 추가 운영의 아쉬움
- 홍보의 다양화 구축 주안점 필요

## 5. 나가는 말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들은 모두 사회적인 요구나 도서관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는 작은 도서관이 어떠한 유형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위치가 도서관 운영 성과나 효과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은 혼자가 아닌 지역 내 연합 체계가 제공하는 행사나 공동사업등 다양한 경로의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도서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내 도서관들의 상생을 통한 효과는 현재 저희 푸른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송파구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의 협업활동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은 이용자가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다. 야근이 일상화된 직장인, 하다못해 학생들마저 수능과 취업으로 경쟁에 내몰리는 사회에서 독서를 일상화하기란 쉽지 않다. 책 읽는 시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피로사회를 탈피하고 사유하는 여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독서환경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 그로인해 얻어지는 삶의 지혜야말로 내면의 생각과 기쁨을 채우는 에너지의 근원일 것이다.

오늘 하루도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책을 든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 ※



## 아파트라는 ‘공동 집합 건물’의 특성을 활용하라!

김은정/ 데시앙책울터작은도서관 도서관장

### ‘한울타리’에서 ‘책울터’가 되기까지

데시앙책울터작은도서관(이하 책울터)은 서울시 동북권 끝자락 중랑구에 위치한 SH 장기전세 아파트 단지 내에 자리하고 있다. 올해로 개관 6주년을 맞은 책울터는 아파트 입주 후 3년간 닫혀 있던 마을문고의 문을 열기 위해 몇몇 엄마들이 뜻을 모으고 6개월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금의 책울터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 이름도 없던 공간에 ‘한울타리’라는 가치를 정하고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아줌마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자 관리사무소도 공동대표회의도 “아줌마들이 해봐야 뭘 하겠어? 저러다 제 팔에 나가 떨어지겠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 말에 더욱 자극을 받은 ‘아줌마 군단’은 SH 공사를 상대로 공동 관리 규약 개정을 추진하고, 단지 내의 여론을 조성하고 움직여 작은도서관 개관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다. 아파트 최초 입주 당시 SH공사에서 제공한 1000만원 상당의 신간 도서는 이미 3년이 지나 구간인 상태였고, 운영비나 물품 등 어느 하나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을문고’의 열쇠를 넘겨받은 것만으로도 감격에 겨웠을 정도였다.

한울타리라는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 아이들이 잠든 틈을 타 거의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경까지 아줌마들의 밤 마실이 시작됐다. 3년 동안 묵은 먼지를 쓸고, 책장을 옮기고, 책을 모으고, 아파트 재활용 날이면 단지 안을 쏘다니며 필요한 물품을 나르는 등, 3달 가까이 공간 정리 사업에 힘을 쏟았다. 2010년 2월에 최초로 단지 입주를 시작한 후 2013년 3월에 처음으로 SH공사에 마을문고 개관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계기로 그해 10월 정식 개관식을 열기까지 총 인원 500여 명(엄마와 아이들, 후원자들)이 부지런히 움직인 결과였다. 한울타리라는 이름이 도서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8월경 아파트 전체에 작은도서관 명칭 공모 홍보물을 부착한 결과, 최종 선정작으로 ‘책울터’가 결정돼 ‘데시앙책울터작은도서관’으로 개관식을 열게 됐다.

이용자 확보 사례\_ 1

○○ 엄마, ☆☆ 할아버지, □□ 동생과 만나세요!

책울터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었다. 처음 도서관을 열자고 뜻을 모은 엄마들은 ◇◇◇유치원 예쁜반 엄마들이었다. 아이들 등하원 때마다 만나 친분을 쌓고, 반 모임과 활동에서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레 육아와 관련된 공통의 관심사를 상의하게 된 것. 단지 내에 ‘마을문고’라는 조그만 표지판이 있는데 뭘 하는 공간인지,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증이 생겨 함께 모여 관리사무소에 방문했다.

그렇게 결코 사소하지 않은 궁금증에서 시작한 도서관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재능이 필요했다. 100여 평이 넘는 공간을 디자인할 건축디자이너, 각종 서류와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문가, 도서관의 성격을 책임질 책과 관련한 인력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었다. 게다가 먼지가 쌓인 공간 곳곳의 청소며 소모품 정리 등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다. 첫 시작은 3명이었으나 일주일 지나자 10여 명으로 늘었고, 1달여가 지나자 100여 명으로 참여자가 늘어났다. 또래 엄마들 모임에서 “○○ 엄마, 아파트에 도서관 만든다는데 청소할 사람이 없대. 같이 가서 도와주자.” “아버님, ☆☆ 친구 엄마들이 도서관 준비한다는데 제가 근무 중이라 못 가니까 간식 좀 가져다주시겠어요?” “□□ 동생이 어려서 시간 내서 도서관에 내려가기 힘든데, 그래도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처음엔 모두가 낯선 인연인지라 쑥스럽고 떼면떼면했지만 모두가 ‘작은도서관 개관’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움직였기에 어색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루하루 날이 지날수록 작은도서관 개관을 위해 동참하는 봉사자도, 후원의 손길도 늘어났다. 단 몇 명의 봉사자보다 누구의 친구, 누구의 엄마, 누구의 가족 등 개인적인 인연을 활용한 홍보



△2013년 3월 ‘마을문고’ 당시 공간 모습



▲2019년 9월 현재 ‘책울터’ 열람실

전략이 성공한 결과 본격적인 3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었다. 휴일이면 남편들을 설득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니 함께하자며 동참을 권유해 무거운 책장이나 책걸상, 소파 등을 날랐다. 처음에는 괜한 일에 나서는 거 아니냐며 말리던 남편들도 가족 모두를 위한 작은도서관을 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줘 수월하게 공간 개선 사업을 마무리했다.

## 이용자 확보 사례\_ 2

### 초·중·고 학령기 아이들의 선호도와 필요도에 따른 장서를 구비하세요!

다양한 연령대의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특성상 장서의 다변화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신규 단지이기에 최초의 입주민들은 영유아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내테시아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 2010년만 해도 단지 내 아이들이 다녀야 할 인근 초등학교는 학생 수는 감소로 한때 폐교설이 나돈 적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 입주와 함께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위기설은 단지 '설'로 끝났다. 당시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아이들의 학력 신장과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독서운동'을 펼치고 있던 중이라 그에 맞는 필독 도서를 구비하는 것부터 책울터의 수서 목록을 작성했다.

처음엔 마련된 예산이 없기에 후원자들의 기증 도서들로 서가를 채운 결과, 개관 당시 8000여 권의 책으로 문을 열게 됐다. 후원 도서의 상당수가 아동 전집류에 치중되는 현실은 어찌 할 수 없었다. 책울터 정식 개관을 앞두고 운영비 마련을 위한 베틀시장을 열면서 현장에서 모은 후원금과 물품으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품 및 기자재를 구비하고 아끼고 아껴 남긴 운영비로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책들을 구입했다. 유치원생이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 필독 도서 목록을 보고 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 중고 서점을 통해 책을 구입했다. 초등학교 필독 도서는 아이들의 숙제와도 연결되기에 동시에 책이 대여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1권만 구입한 후, 후원금이 쌓일 때마다 권당 최소 3권 이상 구비할 수 있도록 관리했다. 그 결과, 현재는 기증 도서들까지 더해져 초등 필독 도서 목록은 기본 3권부터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책의 경우에는 10권 가까이 구비하게 됐다.

한 해 한 해 아이들이 커가는 만큼 학령기 이용자들의 수요도가 달라졌다. 초등학교생이던 아이들이 중학생으로, 중학생이던 아이들이 고등학생으로 성장하면서 청소년 이용자를 위한 도서 구입에 치중하게 됐다. 청소년들은 논술 시험도 대비해야 하기에 인문, 문학, 철학 등 다방면으로 인근 학교의 학교 도서관 추천 목록에 맞춰 책울터의

청소년 서가도 받을 못했다. 또한 책올터가 서울도서관 산하 실사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지원금도 조금씩 늘어 이를 활용해 신간 도서 목록을 잘 때 연령대별 안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 이용자 확보 사례\_ 3

###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특수 도서 구입에 힘쓰세요!

대개의 일반인은 불편을 느끼지 않지만 장애를 가진 이용자나 시각 약자, 노년 이용자는 자잘한 글씨가 빠곡한 일반 도서를 읽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최신 베스트셀러를 읽고 싶어도 눈의 피로를 호소하며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눈이 보이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에는 점자도서나 오디오북이 없어 이용할 수 없다. 이 같은 이용자를 위해 책올터에서는 창비의 <책 읽는 손가락> 시리즈 점자 그림책을 도서 지원금 활용의 최우선 구매 도서로 결정했다. 점자 그림책은 시각 장애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책올터를 이용하는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점자 그림책이라는 새로운 도서 형태를 알리는 데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 이용자를 위한 ‘큰 글씨 그림책’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해 별도의 서가를 마련해두고 있다. ‘책 읽는 손가락’과 ‘큰 글씨 책’은 한 서가에 꽂아 책등에 별도의 라벨을 붙여 구분해두었다.



**이웃과 함께 겨울나기**  
**데시앙 책올터 작은도서관**  
**행복주간**  
 2018. 12. 24(월) ~ 12. 29(토)

**주요행사프로그램**

|                   |                                                                                                     |
|-------------------|-----------------------------------------------------------------------------------------------------|
| 24일 (월) 4:30-5:30 | 신내리통합창단 2기 졸업음악회                                                                                    |
| 25일 (화)           | 휴 일                                                                                                 |
| 26일 (수) 4:00-5:00 | 산타를 이겨라                                                                                             |
| 27일 (목) 3:30-5:30 | 재활용 장난감 만들기<br>-류지심 미술 / 자유롭게 만들기                                                                   |
| 28일 (금) 5:00-6:00 | 책올터시상식 & 독서퀴즈<br>- 날개없는 천사상 - 행복주는 드림상<br>- 책올터 새내기상 - 방앗간의 황새상<br>- 책 읽는 가족 상 - 책읽는 어린이상<br>- 별시상상 |
| 29일 (토) 1:00-3:00 | 마지막 장터<br>- 책올터 열람실 내<br>- 신청방법 : 책올터 전화문의 (문의 : 042-220-1100)<br>(신청순 : 100명)                      |

Merry Christmas

이외에 개인이 소장하기 어려운 의미 있는 책을 구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보문고에서 발간한 《훈민정음 해례본\_영인본》 《난중일기\_영인본》 및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서가를 갖추고자 했다. 또한 오래된 책일지라도 소장 가치가 있는 한국학연구원 발행의 《한국민속학대백과》 전집의 경우에는 기증자의 뜻을 이어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두었다.

## 작은도서관의 효과적 홍보 사례\_ 1

### ‘책울터’ 만의 특색 있는 이벤트를 열어라!

책울터는 봉사자 모두가 학령기의 학부모이다 보니 아이들의 방학을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여름방학 기간에는 ‘책울터 여름 캠프’ 주간을 운영하고, 겨울방학 기간에는 ‘책울터 행복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상·하반기를 대표하는 두 프로그램 외에 매월 독서 퀴즈, 지자체 동네배움터 사업, 평생학습센터 운영, 공공기관 사회공헌 사업 등이 연이어 벌어진다. 이 모든 것은 책울터 운영진들이 업무를 분담해 개별 사업을 추진한다. 관장의 역할은 대외 업무를 주력으로 동네배움터 사업을 추진하고, 부관장은 책울터 베토품시장 및 행사 주관, 사서팀은 매월 독서 퀴즈 및 이벤트 진행을 담당한다. 도서팀은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동시에 신간 구입 및 수서 목록 작성, 자원봉사팀은 1365자원봉사 진행을 맡고 있다. 책울터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매해 2~3월경에 공공기관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 목록을 열람하고 공모 사업에 지원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2019년에는 서울역사박물관의 ‘어린이를 위한 찾아가는 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의 ‘찾아가는 우리 민속-한지공예’ 프로그램을 유치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책울터만의 자랑은 크게 여름 캠프의 대미를 장식하는 ‘다讀다讀 심야 도서관’과 겨울 행복 주간의 ‘찾아가는 산타’ 운영을 들 수 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매일 각기 다른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를 진행하며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 특강도 연다. 여름 캠프의 심야도서관은 금요일 밤 9시부터 토요일 새벽 6시까지 누구에게나 열린 도서관을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가족 영화제를 상영해 모든 연령층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게 했고, 가족끼리 직접 준비한 야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제공했다. 또한 인형극단의 재능 기부 공연을 함께 진행해 열띤 호응을 받았다. 크리스마스가 있는 일주일 기간 동안 펼쳐지는 ‘행복 주간’ 때는 한 해 동안 책울터를 이용한 회원들의 통계를 산출해 ‘참새가 방앗간상’, ‘당신은 기부천사상’, ‘책 읽는 어린이상’ 등 푸짐한 시상식을 진행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는다. ‘찾아가는 산타’는 12월 초 책울터 밴드에 사전 접수를 통해 20가족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접수받아 크리스마스이브

에 각 가정으로 산타가 직접 방문해 선물을 증정한다. 이전에는 데시앙 자치 조직인 ‘아빠지킴이’ 회원들이 도와주었고, 지난 2018년에는 밴드 게시글을 통해 산타 역할을 맡을 도우미 아빠를 공개 모집했다. 처음 해보는 역할이라 어색하다며 개별 방문보다 산타 아빠 5명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선물을 나눠주고 엄마, 아빠의 특명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펼쳤다.

책울터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책울터 밴드의 게시판과 아파트 단지 내 36기 엘리베이터 게시판을 통해 사전 공지 후 선착순 접수, 밴드 댓글 접수 등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경우에 따라 아파트 공용 지정 게시판 7기에 포스터 형태로 게시하기도 하며, 행사 규모가 큰 경우 단지 정·후문 쪽에 플래카드 내걸어 홍보한다. 엘리베이터 게시판은 관리사무소용이 위쪽에 4칸 위치하고 아래쪽에 공동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책울터 전용 게시판 4칸을 별도로 설치해 사업과 내용이 구분되도록 게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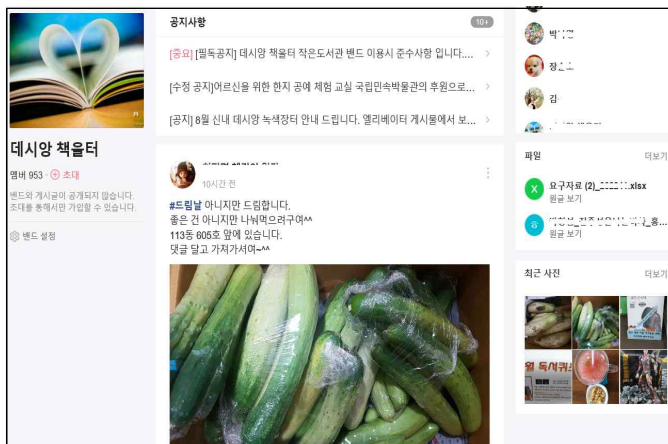
## 작은도서관의 효과적 홍보 사례\_ 2

### SNS 미디어 채널을 적극 활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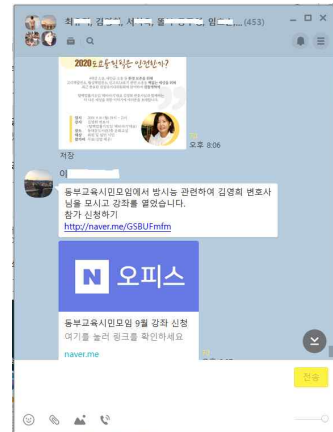
처음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카페에서 온라인상으로 얼굴을 익힌 이용자들은 책울터 개관 준비부터 ‘데시앙 책울터 밴드’로 옮겨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19년 9월 현재 책울터 밴드의 가입자는 954명으로 입주민과 지역민의 비율이 2:1 정도로 구성돼 있다. 책울터 밴드가 중랑구 관내에서 가장 활성화된 밴드로 유명하다 보니 인근 지역민들이 지인의 초대를 받아 가입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책울터 밴드는 실명제로 가입하며 화요일 무료 나눔글, 수요일 판매 및 공동 구매글을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며 작은도서관 공지글은 상시 게시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때 무분별한 홍보글과 판매글이 난무해 운영진 회의를 거쳐 요일별 운영 규정을 만들고 다수의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책울터 밴드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접속하다 보니 분실물이나 구인·구직, 각종 매칭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용도의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책울터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첫 번째 홍보 방식은 책울터 밴드의 게시글로 시작된다. 이용자의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에도 좋기 때문이다.

책울터가 자리한 서울시 중랑구에는 다양한 민간 기관과 지자체 실무자 등이 한데 어우러져 활동하는 카카오톡 ‘중랑마을넷’ 단톡방이 있다. 2019년 9월 현재 단톡방 참여자가 453명에 이르는 대규모 채팅창으로 지역 내의 다양한 소식을 공유하며 사업을 진행한다. 기관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교육·문화·예술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만

큼 책올터의 사업도 마을넷 특방을 통해 공유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그 덕에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도 책올터의 사업 내용을 동시에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다. SNS 채널은 다양한 사업을 공유하는 동시에 지역 내의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업데이트해 책올터 이용자에게도 홍보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회가 급변하는 만큼 변화의 속도에 맞춰 홍보 채널의 다양화를 꾀하고 단지 입주주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것이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 데시앙책올터작은도서관 밴드



△ 중랑마을넷 단톡방



## 날마다 달라지는 우리 동네 꿈을 꾸는 작은도서관

정수미/ 백현3 꿈꾸는 작은도서관 간사

### 1. 설립일 :

2015년 11월 18일 작은도서관 등록, 12월 4일 개관  
백현3단지 아파트 내 커뮤니티 공간에 작은 도서관을 개관

### 2. 설립 목적 :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들의 능동적인 독서생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적호기심을 충족시키고 풍부한 정서를 기르도록 지원한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과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정 독서문화와 지역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

### 3. 현황 및 연혁 :

- 등록 회원수 524명, 보유도서수 6,300권
- 2015년, 12월 개관
- 2016년, 4월 분당판교 청소년수련관 활동 지역연계 협력
- 2017년, 2월 레츠런마사회 지원 마인드케어 아동상담 진행
- 6월 경기도 꿈을 선물하는 행복한 책 나눔 사업 선정
- 2018년, 4월 경민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 5월 경기작은도서관협회(경도협) 동아리 지원사업 진행
- 6월 경민대 작은도서관 멘토링지원사업
- 7월 제1회 방학맞이파티 개최
- 9월 독서의달 행사 및 따복지원사업 4종 프로그램 진행
- 10월 제1회 이야기가 있는 작은음악회 개최
- 2019년, 3월 경기교육청 꿈의학교 마중물 진행
- 4월 경도협 독서치유 지원사업 진행
- 5월 성남청소년재단 마을이멘토다 지원사업 진행

- 6월 레츠런마사회 지원 그림책지도사 양성과정 진행
- 7월 제2회 방학맞이 파티
- 8월 돌봄교실 그림책지도사 파견(일자리 창출)
- 9월 제2회 이야기가 있는 작은음악회 개최

#### 4. 운영의 주안점 :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도서관, 문턱이 낮아 주민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 마을 공동체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커뮤니티의 장소가 되고자 한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바탕은 책이 되어 책과 함께 꿈꾸는 도서관이 되고자 한다

#### 5. 도서관의 자랑거리

- 시니어봉사단 활동지원을 통해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 도서관
- 다양한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도전하는 도서관
- 마을공동체 네트워킹과 지역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도서관
- 가족공예, 독서, 상담 동아리들이 단골로 대관하는 사랑방
- 마을이 멘토가 되는 곳, 꿈꾸는 유토피아 백현 드림피아

#### 6. 이용자 확보 사례

백현3꿈꾸는 작은 도서관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휴먼시아 백현마을 3단지 아파트 내에 위치한 아파트 사립 작은도서관이다.

백현3단지에 입주 1,772세대, 백현4단지에 입주 2,000 세대로 대단지에 근접하고 있으며, 2015년 개관 이후 현재 일일 평균 이용자수는 40여명이며,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작은도서관 6곳, 시립어린이도서관이 1곳 있다.

주민들은 가까운 작은도서관에서 양질의 프로그램 교육을 원하고 다양한 모임들의 장소를 제공받길 원한다. 수요가 있다면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작은도서관은 도서의 대출반납 및 열람기능을 넘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작은도서관의 문을 열고 단던 주민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고민해 보았다.

어떻게 하면 작은도서관에 대해 다양한 욕구가 있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혹은 관심이 없는 주민들에게도 독서를 통한 지적호기심 충족과 문화생활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 아파트의 작은도서관을 복합적인 기능을 보유한 사랑방으로 만들어 보는게 어

떨까? 문제제기는 해결해보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졌고, 좀 더 나은 우리들의 작은도서관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갈망은 곧 실천으로 이어졌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논골 작은도서관에 방문하여 벤치마킹 할 아이디어를 찾아보았다. 주택 단지에 위치한 논골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내 사립 작은도서관과는 운영형태가 다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색깔의 옷으로 아이디어를 재탄생 시킨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려면 이용에 제한이 없고, 주민들의 수요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여러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2019년, 올해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지원 사업, 성남시 지원 사업, 레츠런 마사회 지원 사업, 교육청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작은도서관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수와 도서관 평가등급도 상향조정 되었다.

작은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한계는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조정 된 작은도서관에 지급되는 운영지원비와,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된 아파트관리소의 운영지원비 상향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강사진의 부족이 또 다른 고민이 되었지만, 도서관이 활성화 되며 작은도서관으로 발걸음을 하는 주민 이용자수가 늘어났고, 지역 내 보유한 인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인 인문학 강좌 ‘어서와, 드림피아는 처음이지?’의 진행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인재들을 발굴해 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백현동을 포함한 근거리 정자동, 이매동, 서현동 등 타 지역 주민들과도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이어 갔다. 이를 통해 크고 작은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었다. 독서문화 외에도 주민들의 수요가 있고 지적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은 작은도서관이 자립할 수 있는 재정의 바탕이 되었다.

#### ▶어서와, 드림피아는 처음이지? 고궁 탐방편

레츠런 마사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한 그림책지도사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강사진은 작은 도서관 뿐 아니라 지역 내 초등학교 및 방과 후 돌봄센터와 연계하여 파견하였다. 이는 고용 중단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도사 양성과정 이후 자격증을 취득한 주민들이 모여 동아리를 만들고, 지역 내 인력개발센터에 활동 동아리로 등록하는 등 분주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 ▶레츠런 마사회 지원 그림책지도사 양성과정 및 돌봄센터 강사파견

작은도서관 내에서 다양하게 활동 중인 동아리들과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협동을 통해 제2의 방학맞이 파티와 작은 음악회를 이어나간 것은 작은도서관을 넘어선 마을 공동체로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되었다.



환경적으로 부족하거나, 진행사항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단지 내 관리소와 협의를 통해 지원받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 적용해보고, 우수한 작은도서관들의 운영사안들을 벤치마킹해 가며 수정해 나갔다.



▶작은도서관 동아리 및 프로그램수강생들이 함께 만든 제2회 방학맞이 파티

작은도서관과 마을이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고자 함께 진행하게 된 전래놀이 봉사동아리 ‘너영나영’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까지 참석하여 세대간의 격차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소통하는 장이 되었다. 올해 전래놀이의 배움을 가진 ‘너영나영’ 1기는 내년에는 자체 봉사단을 꾸려 또 다른 2기, 3기를 모집하여 운영코자 계획 중이며 이것은 지속가능한 형태의 작은도서관 사업이 될 것이다.



▶ ‘너영나영’ 전래놀이 봉사동아리

## 6. 비전

### 1) 백현3꿈꾸는 작은도서관은 소통하는 도서관이 되고 싶다.

- 지난해 온라인 밴드를 개설하여 홍보 및 활동내역들을 게시하고 있으며 현재 가입회원수가 4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작은도서관의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고, 미디어 시대에 발맞춤으로써 좀 더 가깝고 친근한 도서관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

### 2) 백현3꿈꾸는 작은도서관은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서관이 되고 싶다.

- 지원을 통한 일회성 사업이 아닌 향후 5년을 바라보고, 주민들의 수요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고 운영하고자 노력한다.

지역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방학 맞이 파티/ 작은음악회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으며, 전래놀이 봉사동아리/ 성인 인문학강좌/ 꿈의학교/ 그림책, 독서토론 강사진 양성은 그 뒤를 잇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3) 백현3꿈꾸는 작은도서관은 꿈꾸고 나누는 사랑방이 되고 싶다.

-무더위의 쉼터가 되고, 차 한 잔의 여유를 갖는 공간, 주민모임의 장소가 되고 동아리들의 안식처가 되는 곳. 문턱을 낮추어 대관의 범위를 넓히고 주민들이 함께 가꾸어 나가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

4) 백현3꿈꾸는 작은도서관은 인재를 키워나가는 도서관이 되고 싶다.

- 도서관 봉사는 책과 관련된 사서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다양한 역량을 보유한 다양한 인재들을 열린 형태로 봉사지원 받음으로써 개개인의 역할을 다하고 나아가 마을공동체의 일원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함께 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백현3꿈꾸는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어 집니다  
보다 나은 내일, 보다 즐거운 도서관이 되고자 여러 주민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보람되고 뜻깊은 봉사를 하실 열정있는 주민인재를 모집합니다

- 모 집 분 야 -

- 일러스트 능력자
- 1365 자원봉사자 관리자
- 관내 도서관리 및 등록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독서 외 관련 재능기부

★ 특 별 혜 택 ★

- 1365 봉사실적 등록
- 도서대출수 3권→5권
- 관내 개설 수업 우선신청
- 월 1회 회의를 겸한 다과회
- 보람과 자아실현의 기회

함께하는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모두가 꿈꾸고 나누는 사랑방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하실래요?

**신청 : 작은도서관으로 언제든지 문의!!**

백현3 꿈꾸는 작은도서관 [직인생략]



## 미소뜰에 내린 행복- 미소뜰작은도서관

김미경/ 미소뜰작은도서관 관장

### 1. 설립 및 현황

2008년 12월 26일 작은도서관 등록,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에 위치한 541세대 규모의 동도미소드림아파트 내 관리동 1층 입주민  
커뮤니티 공간에 작은 도서관을 2008년 12월에 개관  
등록 회원수: 524명, 보유장서: 11,000여권  
면적: 자료열람실 95.8m<sup>2</sup>, 강의실: 65.6m<sup>2</sup>  
좌석: 45석, 강의실 20석

### 2. 설립목적

미소뜰 작은도서관은 어린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특성을 살려 가까운 곳에 지  
적공간(마을도서관)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입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정보와 문화를 교  
류하고,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입주민간의 소통의 장을 열어주  
고, 어린이 들에게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과 꿈을 키우고, 청소년들에게는 독서를 통  
한 개발과 동기부여, 성인들에게는 균형 잡힌 사고로 통찰능력을 길러 성숙된 삶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3. 독서문화 프로그램

2017년, 2월 나의 책만들기(2회)  
3월 행복한 요리여행(2회)  
4월 오감만족 전래놀이(4회)  
8월 알콩달콩 자연사랑 EM놀이터(2회)  
11월 자신감 점프 꿈꾸는 동화구연(4회)



2018년, 8월~10월 이야기로 배우는 고사성어(10회차)

동화구연(6회차)

7월~8월 책으로 만나는 환경이야기(4회차)

체스게임배우기(5회)

왕초보 큐브(5회차)

스마트폰 활용교육(9회)

시낭송 수업(7회)

10월 “행복한 우리아파트” 그림그리기 대회

7월 우리 집 애물단지 이웃집 보물단지 아나바다

7월 자원봉사자 심폐소생술 교육

11월 우리 집 애물단지 이웃집 보물단지 아나바다

9월 떡공예

8월 아름다운 호수공원(지시제) 만들기(2회)12월 고전읽기를 통한 나 찾기(3회)

그때 그 시절, 그 노래(3회)

1월~12월 EM나눔 행사

1월~12월 영어회화동아리

1월~12월 독서동아리



2019년, 2월~5월 독서지도사 수업(10회)

3월 북아트(3회)

3월 전통놀이(5회)

3~9월 매월 최다출석왕 시상(6회)

6월 전주 푸드 우리밀 체험

8월 돌봄교실 그림책지도사 파견(일자리 창출)

9월 제2회 이야기가 있는 작은음악회 개최

##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들



### 3. 운영의 주안점 :

-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교육경험의 장소를 학교 밖으로 확장하여 방과 후 아이들이 안전하게 쉬어가며 다양한 독서 활동을 제공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공간을 만들 고자 한다.
- 어린이들에게는 꿈, 인성, 자존감 향상 및 건전한 여가활동 다양한 프로그램과 독서를 통한 놀이와 재미를 통해 사회성 발달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교육으로 자신감을 키워 주고자 한다.
-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입주민들뿐만이 아닌 동네주민들의 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문턱을 낮추려 누구나 편하게 올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 4. 미소플 작은도서관의 자랑거리

-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능한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
- 매월 독서 동아리, 영어 동아리등 주민이 참여하고 주인되는 프로그램을 운영
- 봉사선생님들과 중,고학생들의 봉사 활동 시간을 1365에 올려 실질적인 도움
-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자부심을 향상
- 각종 언론매체 우수사례로 보도되어 봉사샘들의 자부심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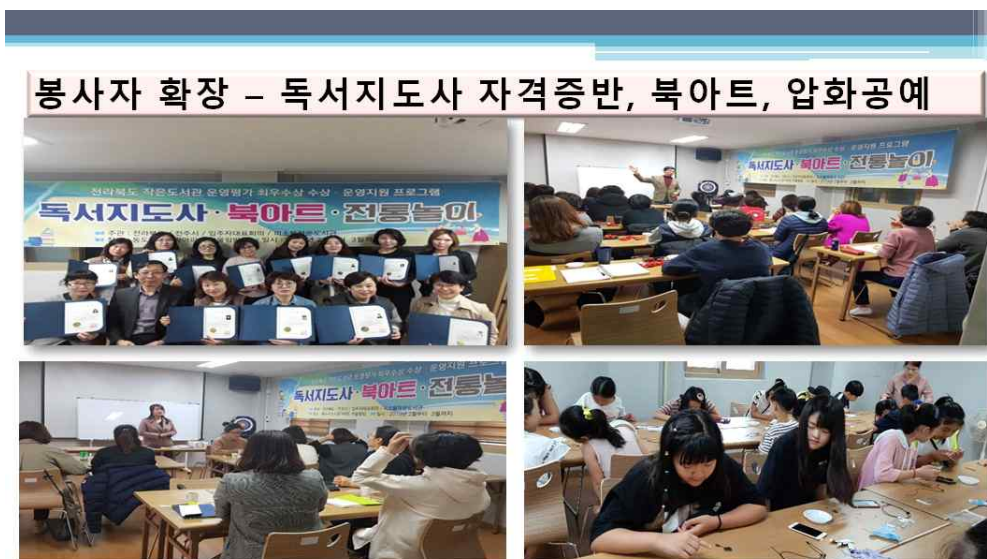
## 5. 자원봉사자 활용과 운영비 확보 사례

미소플 작은 도서관은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2004년에 541세대 규모의 동도미소드림아파트 내에 위치한 사립 작은 도서관이다.

2007년 2기 입주인 대표자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로 1년동안 준비하여 2008년 12월 26일 개관하였으며, 이후 2019년 현재 일일 평균 이용자수는 50~60여명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봉사자 5명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봉사자가 25명에 달합니다. 특히 방학 중에는 학생봉사자 또한 30명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대기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원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기에 오늘날과 같이 바쁘고 이기적이며 개인적인 사회에서 무조건 봉사, 희생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우리 미소플작은도서관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에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롭다. 자원봉사 자체가 일정한 영역에서 공익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보상은 자원봉사자에게 입주자 대표,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1365가입하여 자원봉사시간을 올려주는 시스템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올해에 이르기까지 매해 전라북도지원 사업, 전주시 지원 사업, 교육청 지원 사업인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특화사업등,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받은 사업보조금



을 통해 작은도서관 동아리활동을 진행하고 더 많은 아이들과 입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다보니 해마다 도서관 이용자수와 도서관 평가등급이 올라가 다른 도서관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금년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원하는 매월 30만원에 올해는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5개월간 150만원을 지원받아 이용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수도 없이 많은 행사들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봉사선생님들과 입주민들이 능력을 향상 시켜 지금은 마을의 리더로, 각자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지금은 줌마에서 사회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 6. 비전

- 미소뜰작은도서관은 아파트 안의 작은 독서공간을 넘어 꼭 찾아보고 싶은 전주시의 유명한 문화공간으로 확장되고 싶다.
- 미소뜰작은도서관은 봉사선생님들이 봉사에서 머무르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마을의 리더로 성장시키고 싶다.
- 미소뜰작은도서관은 입주민뿐만이 아닌 마을지역의 쉼터가 되고, 차 한잔의 여유를 갖는 수다 공간, 주민모임의 장소가 되고 동아리들의 안식처가 되는 곳이 되어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도록 활성화 시키고 싶다.
- 미소뜰작은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자신이 받았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본인의 능력만 향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에 되돌려 주는 빛과 소금과 같은 인재로 자라나게 도움을 주고 싶다.





## 김해 팔판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신훈정/ 김해 팔판작은도서관 관장

### 1. 설립동기와 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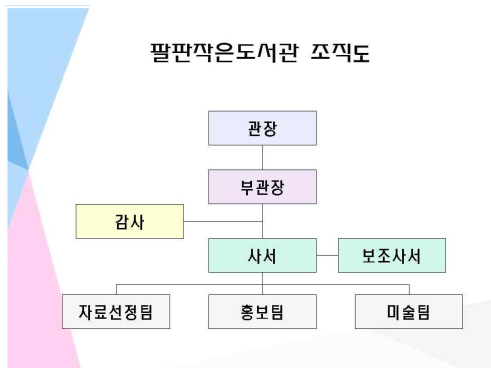
팔판작은도서관은 2009년 7월 4일 첫 개관을 하였으며, 경남 김해시 팔판마을 부영e그린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다. 김해시는 2008년 ‘책 읽는 도시 김해’를 선포하고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아파트 단지 내 거주하는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아파트 관리동 문고 자리에 작은도서관 설립을 추진하였고, 김해시의 시설비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아 도서관의 공간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6년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의 작은도서관이 아름다운 지원센터에서 공모한 특화도서관지원사업에 생활미술특화도서관으로 지원을 하고 선정되어 5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도서관의 공간을 확장하고 2017년 9월 생활미술특화도서관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된다. 사례가 없는 생활미술 특화도서관을 만들어 가는 일은 우여곡절도 많았으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공간조성을 마치고 생활미술특화도서관에 알맞는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반복하며 팔판작은도서관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다.



### 2.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지역의 뜻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의 주체가 된다. 팔판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 없이는 운영이 될 수 없는 구조이다. 도서관의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 이웃의 참여와 봉사가 있기에 가능하다. 김해시 조례에는 작은도서관



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팔판작은도서관은 현재 관장 1명과 부관장 1명, 사서 1명과 미술도서관을 맡아주고 있는 보조사서 1명, 운영위원 8명 총 12명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12명이 자료선정팀, 홍보팀, 미술팀으로 업무를 나누고 매달 각 팀별 정기회의를 진행한 후 매달 전체 운영위원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운영위원 정기회의는 2009년 도서관 개관 이후 매달 진행되어 왔다. 회의 전 회의자료를 정리하고 회의내용은 반드시 회의록에 작성하여 보관한다. 미술특화 후 예전보다 도서관 규모가 두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일도 늘어나 일의 효율성을 위해 팀을 나누고 일도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팀별 진행사항은 모든 운영위원이 수시로 SNS를 통해 공유한다. 일손이 부족할 때에는 모든 일을 함께 돕고 있다.

김해시는 2008년 책 읽는 도시 선포 이후 38개소 작은도서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감안하여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2019년 현재 김해의 35곳 작은도서관이 분기별 6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고, 시각장애인대상 소리작은도서관, 다문화전문 글로벌작은도서관은 특수 도서관으로 분기별 900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팔판작은도서관은 특화도서관으로 마찬가지로 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대부분의 보조금은 사서와 보조사서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 그 외의 운영비는 매달 아파트의 지원금 20만원과 전기세, 난방비 지원, 문화강좌 수익금,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3. 운영의 주안점

작은도서관은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동체의 플랫폼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남녀노소는 모두가 바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쉽지 않다. 도서관은 할 일이 없을 때, 조용히 있고 싶을 때 가장 좋은 장소이면서 반면 사람을 만나고, 책을 만나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팔판작은도서관 운영의 가장 큰 주안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기’이다. 보이지 않는 유리 장벽이 그 누구도 가로막지 않도록 늘 신경을 쓴다. 작은도서관의 이웃이 편안하게 이용한다는 장점은 몇몇의 이웃이 작은도서관을 사유화 할 수 있다는 맹점을 갖기도 한다.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사립이고 규모가 작지만 공공성을 가진다. 때문에 자원봉사자 또는 도서관을 자주 찾는 몇몇이 그들의 공간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운영위원 스스로 도서관을 아끼고, 규칙을 지킨다.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내 아이부터 도서관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신경 쓴다. 도서관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공간을 차지하고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가져온 음식을 먹는 등의 행동은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발길을 돌리게 하는 큰 이유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4. 내놓을만한 자랑거리

팔판작은도서관은 생화미술특화도서관으로 기존의 작은도서관과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 100평 가까운 규모의 팔판작은도서관은 특화사업 이전 공간과 특화사업 이후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도서관 공간은 <책+> 공간으로 기존의 작은도서관 성격을 살려 주로 책을 읽고 대출반납을 하는 공간이다.

새롭게 조성된 공간의 가장 큰 부분은 <예술+>이다. 예술분야 책을 주로 배치하고 다양한 미술활동을 일상적으로 진행한다. 책상마다 싸인펜, 색연필 등이 놓여져 있으며, 이면지와 색종이, 색칠용 용지가 항상 구비되어 있다. <예술+>입구 벽에는 현재 할 수 있는 참여미술이 안내되어 있고 데스크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미술활동과 참여미술의 재료를 받아 해볼 수 있다.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지만 종종 500원, 1000원 정도의 재료비를 받기도 한다.



또 한곳 자랑할 만한 공간은 전시공간이다. 기존에 문화강좌실로 들어가는 복도였던 공간을 작품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하였고, 민화, 캘리그래피, 서각 등 지역작가의 작

품, 이용자의 작품 등 그동안 다양한 전시를 진행하였다.

만화방을 따로 마련하고 매트를 깔아 편안하게 쉬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다양한 문화강좌와 강의를 할 수 있는 문화강좌실이 현관에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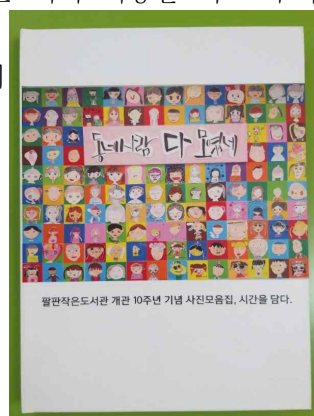
또한, 자원봉사방이 작게 마련되어 있어 짐을 정리하고 운영위원의 일방이자 컴퓨터 쓰이고 있다. 그 밖에도 팔판작은도서관의 자랑거리인 수도 없이 많다.

### ① 다양한 미술활동을 할 수 있다.



팔판작은도서관은 생활미술특화도서관으로 기본적인 미술활동을 언제나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누구나 도서관에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미술’을 진행한다. 이웃이 그린 10센티 폼보드조각 그림 약 1000조각으로 한 벽면을 채웠던 <팔판의 색을 찾아서>, 특화도서관 오픈식에 오는 모든 분들이 꽃길을 걷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웃이 함께 색종이를 수없이 접어 도서관 주변을 장식했던 <꽃길만 걸어요>, 각자 읽은 책, 추천하고 싶은 책의 책등을 적고 꾸며

모았던 <팔판의 서재>, 도서관 10주년 기념 이웃을 한자리에 모으려는 의미로 진행했고 자료집 표지에도 실린 얼굴그리기 프로젝트 <동네사람 다 모였네> 등 수많은 자료조사와 회의를 통해 기획한 수십가지의 참여미술을 진행했고, 앞으로도 새로운 참여미술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 ② 책을 좋아하지 않아도 부담 없이 올 수 있다.

도서관을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편견을 깨는 곳이 작은도서관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이웃은 책을 보고, 책을 빌리기 위해 도서관에 올 뿐만 아니라 만남의 장소로, 차 한 잔 마시기 위해, 영화를 보러, 공연과 전시를 감상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언니 오빠와 놀기 위해, 친구를 만나기 위해 도서관에 온다. 그래서 늘 북적북적하다.

### ③ 환경이 깨끗하고 넓고 예쁘다.

팔판작은도서관을 오는 분들은 이야기한다. 도서관이 정말 예쁘고 올 때마다 무언가 바뀌어 있어서 올 때마다 무엇이 변해 있을지 기대를 하고 오게 된다고. 비록 아파트 관리동 지하에 위치해 있지만 다른 작은도서관에 비해 규모도 크고 깨끗하고 아기자기

하고 예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 ④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팔판작은도서관은 일년 내내 수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영화상영, 벼룩시장, 시낭송대회, 독서골든벨, 생일잔치, 시낭송대회 등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으로 내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으며, 외부 단체와의 협력으로 다양한 공연과 강연도 이어진다. 전년도 꾸준히 진행하고, 몇 년째 타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꿈다락을 진행 중이며,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사업, 돌봄사업 등도 진행하였다.

#### ⑤ 김해의 모든 책을 빌려볼 수 있다.



김해의 자랑거리 중 하나가 ‘책두레 시스템’이다. 김해시의 크고 작은 도서관은 상호대차시스템으로 연결되어 내 집과 가까운 도서관에서 김해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모든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원하는 책은 거의 모두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책두레신청을 하면 하루 이틀 안에 지정된 도서관으로 책이 배달되고, 김해의 도서관 어디에서나 반납이 가능하다. 1인당 7권을 2주간 빌릴 수 있고, 4인 가족 기준 한번에 28권의 책을 언제나 빌려 볼 수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책의 수도’라고 내세울 만한 시스템이라고 본다.

#### ⑥ 투명하고 수평적이며 체계적인 운영

팔판작은도서관은 타 작은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예산상황에서 운영된다. 운영 위원회에 감사가 있고, 매년 감사를 통해 1년 살림을 점검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회계 관리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운영위원과 공유한다.

또한, 관장, 사서, 운영위원은 모두의 의견을 동등하게 귀중하게 여기며 수평적 관계를 맺으며 지내고 있다.

#### ⑦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편안하다.

부정적이고 사무적인 태도가 아닌 긍정적이고 따뜻하게 이웃을 만난다. 내 아이가

아닌 이웃집 아이도 내 아이처럼 보듬고 잘못을 하면 외면하지 않고 따끔하게 야단도 친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설명을 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이용자가 있다면 잘 듣고 수용한다. 눈에 띄는 이용자가 있다면 ‘하지마세요!’가 아니라 조용하고 친절하게 부탁을 한다.

#### ⑧ 정기적으로 이웃이 함께 참여하는 외부 행사를 진행한다.

작은도서관은 책 뿐만 아니라 이웃을 아우른다. 팔관작은도서관은 매년 봄, 가을 외부 행사를 준비한다. 5월 가정의 달에는 2년째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정자공원에서 대규모 행사를 치렀다.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위해 지역의 기관, 단체 등과 TF팀을 꾸리고 행사를 준비해 더 많은 이웃과 만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가을에는 도서관 주변 벽화공원과 놀이터를 중심으로 도서관 한건물 이웃인 어린이집과 함께 먹거리, 베품시장, 전통놀이 등을 준비한다. 아파트 단지 내 이웃이 만나 소소하지만 즐겁게 먹거리를 즐기고 저렴하게 물건도 사고팔며 이웃의 정을 나누는 자리이다.



## 5. 자원봉사자 활용 및 운영비 마련

### 1) 자원봉사자 활용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뜻있는 이웃이 모여 설립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처음부터 자원봉사자에 의해 시작되고 운영 또한 자원봉사자 없이는 할 수 없다. 작은도서관은 책 이전에 자원봉사자라는 사람이 우선인 셈이다.

자원봉사자란 ‘어떤 일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돕는 사람’을 일컫는다.

10년간 도서관을 오고 가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를 만났다. 본인 또한 자원봉사자로 10년을 도서관에서 지냈다. 관장을 맡고 최근 들어 본인을 포함 자원봉사자들을 보며 궁금한 점이 생겼다. 이들은 왜 이렇게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며 도서관의 일을 하고 있을까?

집안일을 하거나, 편하게 쉬거나, 지인을 만나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취미생활을 즐길 수도 있을 텐데 이들은 왜 도서관에서 열띤 회의를 하며 고민을 하고, 내 아이는 뒷전으로 두고 힘들게 도서관의 업무에 몰두하며, 힘든 노동도 마다하지 않을까?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내 아이에게 특별히 이득이 되는 일도 아니고, 캐리어에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전업 주부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00엄마'로 불리며 이름을 잃는다. 자아는 사라지고 한 가정의 일부이자 보조자로서의 역할이 주된 업무가 된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에서는 나의 역할이 있다.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낀다. 자아 효능감을 찾아간다.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작은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누군가를 위해 쓸 수 있다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 작은도서관으로 발걸음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작은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자원봉사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듯하다. 첫 번째로는 도서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운영위원분들이다. 팔판작은도서관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명의 자원봉사자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분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도서관의 일에 참여해주신다. 그러나 각자의 역할이 없을 때 운영위원은 의견을 내거나 적극적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팀을 나누고 작아도 각자의 역할이 있을 때 도서관은 '나의 도서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그들의 역할이 조금 미흡하고 참여가 저조하더라도 서로에게 비난하거나 억울해하지 않는 것이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기고 서로를 북돋우고 칭찬하고 도와야 한다. 도서관 자원봉사는 기업의 조직이 아니다. 강요할 수도 없고, 지쳐서도 안되며, 서로 상처를 주어서는 더 더욱 안된다. 그래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도서관이 잘 돌아가며, 도서관을 찾는 이웃도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운영위원이었던 이웃,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이웃, 도서관을 자주 찾는 이웃, 그 밖에 도서관과 관계를 맺어온 다양한 분들이 있다. 도서관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어 일손이 필요할 때면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고



있다. 몇 년을 꾸준히 친구들 수학을 가르쳐 주신 분, 과학, 영어 등 본인의 전공을 살려 정기적으로 초등학생 지도를 해주신 분, 사회를 봐주시는 분, 기타나 피아노를 쳐주시는 분, 떡볶이를 해주시는 분, 정리를 해주시는 분, 캘리그래피를 적어주시는 분, 새 책이 오면 도장을 찍고 정리를 해주시는 분 등 그야말로 필요할 때 꼭 맞게 역할을 해주시는 양념같은 분들이 계신다. 이런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당연하게 여기면 위험하다.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작아도 성의를 표시하며, 우리의 가족임을 상기시켜야 한다.

세 번째로는 중고등학교 자원봉사자 친구들이 있다. 팔판작은도서관에는 중고등학생 재능나눔 자원봉사자가 많다. 영어를 잘하는 중학생 친구들이 매주 토요일 오전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 주고, 김해의 미술 영재 우시온 학생은 스스로 미술수업을 짜고 동생들에게 다양한 미술활동을 진행해 주고 있다. 김해의 장유고 도담도담 봉사동아리 친구들은 수년째 매주 토요일 오후 도서관에서 동생들과 책읽기, 미술활동, 바깥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주고 있다. 역사가 깊어지니 봉사동아리도 진화해 가고 이제는 체계가 잡혀서 스스로 조를 짜고 매주 방문을 하며 그 어떤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보다 일 잘하고 예쁜 친구들이 도담도담 친구들이다. 그래서 도서관 꼬마 이용자들은 토요일이면 늘 언니오빠를 목리 빠지게 기다린다.

봉사시간을 위해 도서관에 오는 중고등생도 많다. 이 친구들은 주로 청소, 책 정리 등의 일을 하는데 학교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오는 이 친구들은 의지가 부족하고 크게 할 일도 많지 않아서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사람은 많다. 도서관은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열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누군가 수줍게 작은도서관의 자원봉사 문을 두드렸을 때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부탁하며 함께 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기 보다는 일단 함께 무엇이든 해보자며 따뜻하게 맞이하는 자세가 사람을 끌어들이는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도서관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었을 때 반가워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준다. 도서관 일을 함께 하다보면 점점 ‘나의 도서관’이 되어간다.

본인이 도서관에서 느끼는 자원봉사는 끈끈한 연대의 시작이고, 따뜻한 공동체의 시작이며,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한 첫발이다. 그러니 도서관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손을 내밀고, 느슨한 연대를 확장시키고 이어나가기를 바란다.

## 2) 운영비 마련

팔판작은도서관은 다른 지역의 사립 작은도서관에 비해 여건이 매우 좋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 5일 8시간 개방에 100평에 가까

운 규모의 도서관 최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과연 얼마가 적당할까? 팔판작은도서관은 최저임금수준의 사서 1인과 오후 근무 보조사서 1인의 인건비, 최소한의 책 구입비와 등록비, 미술재료비, 프로그램 운영비, 기타 공과금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 마련을 위해 늘 고군분투하고 있다.

팔판작은도서관의 운영비는 여러 곳에서 충당하고 있다. 대략의 수익금 구조는 아래와 같다.

| 항목                     |          | 수익금          | 총수익금       |
|------------------------|----------|--------------|------------|
| 김해시보조금                 |          | 월 300만원      | 36,000,000 |
| 아파트<br>입주자<br>대표회<br>의 | 아파트정기지원금 | 월 20만원       | 2,400,000  |
|                        | 가정의달지원금  | 연 100만원      | 1,000,000  |
|                        |          | 전기세 및 난방비 보조 |            |
| 문화강좌                   |          | 분기별 100만원    | 3,000,000  |
| 기부금                    | 정기후원금    | 연 약 200만원    | 2,000,000  |
|                        | 비정기후원금   | 연 약 50만원     | 500,000    |
|                        | 벼룩시장수익금  | 연 약 100만원    | 1,000,000  |
|                        | 차판매수익금   | 연 약 30만원     | 300,000    |
| 공모사업                   |          | 2019 문화우물사업  | 6,000,000  |
| 총액                     |          |              | 52,200,000 |

<팔판작은도서관 1년 운영비 수익금>

위의 표는 예시로 팔판작은도서관의 대략의 1년치 수익구조를 작성해 본 것이며 매년 차이가 있음을 알린다.

김해시 작은도서관의 시보조금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팔판작은도서관은 없었을 것이다. 관장과 운영위원은 무보수이고 사서는 보수를 받는 구조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사서의 인건비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김해시 작은도서관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팔판작은도서관은 아파트와의 관계가 매우 좋은 편이다. 아파트 내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필수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노인정, 경비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아파트에서 지원해주는 금액과 상관없이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아파트운영과 관계된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관계 맺는 것은 기본이다. 팔판작은도서관은 좋은 일이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관리소, 노인정, 입주자대표회의, 경비실 등 떡을 돌린다. 관리소 직원분들은 도서관이 자잘한 일거리들에 적극 도움을 주고, 노인정 어르신들은 매달 영화를 보러 도서관에 오신다. 관리소장님, 노인정회장님, 입주자대표회장님들은 도서관 행사마다 금일봉을 전해주시고, 도서관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주기도 한다. 아파트 지원금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지만, 가정의 달 후원금으로 1년에 한 번 이웃에게 선물을 나눠줄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마음껏 전기를 쓰고 난방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현재의 지원상황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많지는 않지만 문화강좌를 운영한다. 강사와 도서관이 7:3 비율로 수익금을 나눈다. 문화강좌수강료가 분기별 1인 55,000원으로 워낙 저렴하여 크게 수익은 되지 않지만 이웃이 집 가까이에서 저렴하게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도서관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강좌는 유익하다.

작은도서관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기부금을 받는 것이다. 팔판작은도서관은 두가지 방식으로 기부금을 받고 있다.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매달 알아서 입금해주는 방식과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를 통한 CMS기부금이다. 팔판작은도서관은 정기기부금이 많지 않다. 기부금을 늘릴 방안을 모색해야 할 듯 하다.

팔판작은도서관은 현책을 기증받고 수시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 일년에 두 번은 벼룩시장을 열어 판매를 하기도 한다. 또한 도서관 한 켠에 차와 커피를 두고 돼지저금통을 두어 한잔에 300원씩 자유롭게 기부를 받는다. 일년에 한번 돼지를 잡아 정기간행물을 구독한다.

공모사업도 틈틈이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공모사업이 많고 도서관과 맞을만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한다. 도서관 관련한 공모사업은 주로 프로그램 지원이 많고, 문화예술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재단 등은 프로그램에 맞는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 팔판작은도서관은 2018년에는 김해시 여성가족과에서 돌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019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우물공모사업에 지원하여 600만원을 받게 되었고, 이 예산으로 가정의 달 맞이 김해민예총과 함께 <정자공원 어울림축제>를 진행하였다.

팔판작은도서관 미술특화 후 정기회의 참석 운영 위원에게 회의비 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이다. 그 전에는 회의 후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회의비를 대신했으나 정식으로 회의비를 지급하기로 했고, 도서관 수익금이 더 늘어난다면

회의비를 늘리고 종종 도서관 예산으로 밥도 먹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6. 비전



팔판작은도서관은 이미 마을에서 이웃이 사랑하고 애용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도서관의 성격도 뚜렷하고 사서 및 자원봉사자, 이용자 간의 관계 형성도 매우 좋으며, 아파트 내 관리소, 입주자대표회의, 어린이집, 노인정 등과의 관계도 원활하며, 지역의 타 기관들과의 협력도 매우 잘 되고 있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이 쉽 없이 잘 돌아가고, 적은 양이지만 새책도 꾸준히 구입하고 있다.

팔판작은도서관이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이유는 수평적 관계 형성이라고 생각한다. 동네 이웃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이 모여 함께 의논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나눈다. 그래도 일손이 부족하면 관리소분들, 경비아저씨, 동네 이웃들에게 손을 내민다.

좋은 일이 있으면 떡을 해서 나누고, 유익한 행사가 있으면 아파트 방송으로 알리고, 종이 한 장이지만 정성을 다해 소식지를 만들고 아파트에 쏘는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웃으며 긍정적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운영위원들의 공간이 아닌 우리 이웃 모두의 공간임을 잊지 않고 먼저 조심하고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모든 이웃이 어떤 부탁이든 들어주고 함께 참여해준다.

사람의 온기가 가득한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변치 않도록 유지해 나가는 것이 팔판작은도서관의 비전이다. 팔판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책을 기본으로 한다. 사람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나 스스로 바로 서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 위함일 것이다. 책은 그 역할을 해낼 때 가치가 있을 것이다. 책이 책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모든 사람들이 책과 친해지기 위한 중간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다른 어떤 도서관보다 잘 해내는 도서관이고 싶다. 궁극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가벼운 마음으로 언제 봐도 할 것이 있고, 즐길 것이 있고, 이웃이 있는 곳이기를 바란다. 병풍처럼 둘러쳐진 책을 어느 날 장식이 아닌 책으로 눈 맞춤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는 곳이 팔판작은도서관이기를 바란다. \*\*





## 작은도서관 워크숍 설문지

이 설문은 다음 워크숍 운영 준비를 위한 자료로 사용코자 여러분의  
고견을 구하니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석자에 한하여 기념품을 선물합니다)

● 해당되는 항에 “V”나 간단하게 기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귀하가 참석하신 광역시도는? (예: 서울) (                      )

2. 작은도서관에서 직책은?

① 관장(운영자) ② 실무자(유급직원) ③ 순회사서 ④ 공무원 ⑤ 기타

3. 작은도서관에 소속 여부?

① 공립(위탁)도서관 ② 사립작은도서관 ③ 공공도서관(주무관)

4. 작은도서관에서 참여한 경력은?

① 1년 이내 ② 2,3년 ③ 4,5년 ④ 6년 이상 ⑤ 10년 이상

5. 소속 작은도서관 운영에 평가를 한다면?

① 매우 잘한다 ② 잘한다 ③ 그저그렇다 ④ 등록만한 상태다

6. 현재까지 작은도서관 교육에 참여한 횟수는?(총        회)

7. 이번 워크숍을 평가한다면?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8. 이번 워크숍에서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9. 다음 워크숍에 바라는 분야의 강의 주제가 있다면?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귀하



---

## **2019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자료집**

- 발행일 : 2019. 09. 20.
-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종합청사  
전화: 044-203-2630 <http://www.clip.go.kr>

### **사단법인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5길10-8, 217호  
전화 02-582-2584 <http://www.reading.or.kr>

<비매품>

---

